

Sulwhasoo

VOL.96

Sulwhasoo

VOL.96 2020

Sulwhasoo

2020





색화병 시리즈 / 김동완
유리 / 2020

유리공예는 마음을 가꾸는 일과 같다. 뜨겁게 끓는 유리액을 긴 파이프로 불어야 하는 블로잉 기법은 특히 그렇다. 작은 이물질로도 작업은 허사가 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중심이 흐트러져 버린다.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깨져버린다. 순수하고 진실된 숨결을 불어넣어야 비로소 바라던 모양과 색을 낼 수 있다. 들뜨지 않고 조심조심 다스려야 하는 마음처럼 유리 작업은 늘 맑고 투명해야 하는 것이다. ‘색화병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에 한량없는 다사로움이 밀려온다.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 사람이 빛어낸 영롱한 마음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듯하다. 유리로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색감이 김동완 작가를 만나 고운 결로 빛나고, 한국 전통 도자기의 단아한 형태미를 간직하고 있다. 아침 햇살이 떨어지는 곳에 두고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고운 마음이 활짝 피어날 것 같은 소박한 기쁨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Mastering glass crafts is akin to mastering one's heart and soul.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hen using the glass blowing technique, which requires the artisan to blow hot, molten glass through a long pipe. Even a minute foreign substance can utterly ruin a day's work, and a momentary lapse in concentration can cause the entire glass structure to collapse on itself. The glass can lose its adhesiveness when it gets too hot, or break if it gets too cold. Only when the artisan blows through the pipe with the purest and truest intentions, the glass can take on the desired shape and hue. It is at its best when it is treated with great care and mind stays tranquil.

Even at first glance, the “Color Vase Series” fills people's heart with limitless warmth. It feels like a collection of brilliantly glowing hearts created by the hands of someone with a truly generous and beautiful heart. Glass artisan Dongwan Kim brings a variety of lovely colors to life with his glass-works, and shapes them into the graceful form of traditional Korean ceramics. Kim's work delivers a modest sense of happiness that makes one believe that the simple act of placing a beautiful glass piece on a spot that sheds the sunlight and communing with it can help a pure heart emerge from soul.

탄탄한 피부를 위한 3중 마이크로 타겟팅
자음생에센스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인삼 에너지를 6,000배 이상 농축한 활성뷰티사포닌 진세노믹스™가 피부 속부터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마이크로 타겟팅 탄력을 선사하는 탄력 안티에이징 에센스입니다.

A renewing anti-aging serum that infuses the skin with added resilience with its triple micro-targeting technology
featuring Active Beauty Ginsenoside Ginsenomics™. Ginsenomics™ contains ginseng vitality concentrated
more than 6,000 times to replenish, support, and strengthen the skin from the inside.



Sulwhasoo

VOL.96 2020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애에 존재하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신감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설화수는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설화수는 진귀한 한방 원료의 피부 효능에 주목해왔으며, 그 연구는 하늘이 선사한 최고의 명약으로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고려 인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0여 년 연구 끝에 피부에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고려 인삼 속 핵심 효능 성분을 탄생시켰고, 이는 설화수만의 독점적인 주요 효능 성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합니다. 혁신의 결정체인 설화수 한방 과학 연구센터는 고서에 담긴 비방을 현대 과학 기술로 재해석하여 3,912가지 식물 조합의 효능을 검증하고, 여성의 나이에 따른 피부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합니다. 원료의 순도와 효능을 극대화하고 유효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더해 설화수만의 가장 진보한 피부 솔루션을 전합니다.

Sulwhasoo deeply believes that beauty does not deteriorate over time, instead it evolves. At every milestone in life, a new irreplaceable radiance is awoken. Sulwhasoo defies time and reveals healthy and radiant beauty that redefines time and space.

Korean Ginseng, a gift from time, is the rare and delicate traditional Korean ingredient. After 50 years of dedicated and faithful research on the inimitable Korean Ginseng, Sulwhasoo successfully invented an exclusively rare element from Korean Ginseng that transforms the destiny of skins. This exclusive ingredient of Sulwhasoo continues to be refined by time.

Rooted in its genes, Sulwhasoo continues to innovate by infusing wisdom with modern science. Sulwhasoo Heritage and Science Center is conducting the research on transcending the ancient medical method and cutting edge skin science, verifying efficacy of 3,912 complex of herbs, with in-depth research on women's skins of all ages. As a result, Sulwhasoo witnessed the rise of a revolutionary skin care philosophy, led by Korean advanced technology.

Sulwhasoo

VOL.96 2020

펼 치 다

- 08
설화지혜
맑게 정화하고, 깊이 채우다
12
피부 섬기기
인삼, 아름다움의 근간이 되다
18
新 장인을 만나다
투명, 혹은 불투명의 세계
24
공간미감
아무렇지도 않게, 베개

발행일·2020년 9월 1일(통권 제96호)
발행인·인세총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이아모레파리파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박지영, 김미래)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아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디자인·이경보
사진·GURU visual 02)745-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신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_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2
설화인
빛나는 보석은 시간으로 다듬어진다
42
어우러지다
정성이 담아 ‘웃’ 피우다
48
설화풍경
여일하게 흐르는 맑은 물빛처럼
52
설화보감
팡과 흙의 기운을 전하는 이로운 밥상
58
아름다운 기행
빛나던 옛 영화를 전하는, 꿈의 궁전
64
설화수를 말하다
송고하고 고혹적인 취향

- 72
설화공간
설화수가 불어넣는 새로운 에너지
74
설화수 스페셜
자연의 이치로부터 얻은 지혜를 재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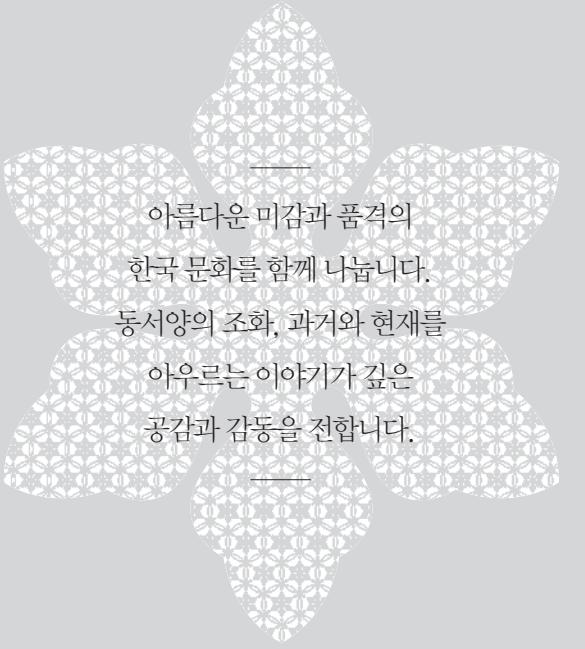
익 히 다

- 80
배움의 기쁨
사그라지며 더 깊은 그 향
84
한국의 멋
지혜를 담는 보석함
86
읽다
고아한 옛 풍취 가득한 시간 여행
90
설화애장
일상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의 조각들
92
집 안 단장
반반한 생반

- 94
프로덕트맵
98
독자 선물



페
리
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맑게 정화하고, 깊이 채우다

Purifying, Moisturizing and Filling the Skin Deeply with Nutrients

옛사람들은 고운 결의 깨끗한 피부를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설화수의 4가지 팩 컬렉션이 다양하고 뛰어난 효과로 피부 고민을 손쉽게 해결해준다. 지친 피부를 위한 설화수의 4가지 처방을 소개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시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윤택한 피부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고분 벽화 속 여성들은 가름한 얼굴에 백옥 같은 피부로 표현되고 신라 시대에는 남성들도 화장을 했으며 고려 시대는 평소에도 목욕을 즐기며 피부를 청결하게 가꾸었다. 조선 시대는 유교적 도덕 관념에 따라 내면의 아름다움과 신체를 단정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희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위해 꿀 찌꺼기인 밀납蜜蠟을 펴 벌랐다가 떼어내거나 창포 뿌리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사용하거나 살구씨를 가루로 만들어 달걀과 섞거나 꿀과 마늘을 섞어서 오늘날의 마스크팩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조선의 여인들은 피부 관리에 온 힘을 쏟았고, 피부를 매끈하게 정리한 후에 한 듯 안 한 듯 은은한 화장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택한 피부 바탕을 위해서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화수가 기준의 마스크팩 2종을 리뉴얼하고, 2종의 신제품을 선보인 것도 피부 톤을 맑게, 피부 결을 매끈하게 가꿔 윤기가 흐르는 피부 바탕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In Joseon Dynasty, people were taught to strive for inner and physical beauty based on Confucian morals and ethics. To make skin fair and radiant, our ancestors occasionally used beeswax (i.e. byproduct of honey) and spread it across the skin, similar to facial masks people do today. At times, our ancestors used powdered iris roots or powdered apricot seeds in diluted water with a mixture of eggs or honey and garlic to use as facial masks in the same way modern people use. To this day, Korean women consider it important to keep their skin clean, hydrated, and nourished for a radiant skin base. Sulwhasoo's latest renewal on two of its facial mask products, and release of brand new products was driven by its desire to help customers clear up skin tone and smoothen skin texture to provide a much more radiant skin.

The newly released "Herbal Clay Purifying Mask" thoroughly removes waste products clogging up the skin pores or stuck between fine wrinkles by utilizing fine clay particles sourced from the Yellow Sea, known as one of the three most renowned mud flats in the world. This mask has herbal

백삼팩

4년근 이상의 귀한 백삼 성분을 풍부하게 머금은 금빛 젤 텍스처가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피부에 촉촉함을 채워, 빛나는 광채를 선사하는 인사워 마스크. 스크럽과 마스크의 멀티 기능으로 샤워하는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급 스파 케어를 받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120ml 7만2000원대

진초팩

피부 정화 효과가 뛰어난 곱고 조밀한 클레이가 피부 표면과 모공을 깨끗이하고, 한방 허브 콤플렉스가 예민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주는 허벌 클레이 마스크. 자연 유래 각질 제거 성분인 PHA로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하고, 시원한 젤 크림 타입으로 피부 진정 효과도 뛰어나다.
120ml 5만2000원대



보라색 접시는 AREA+. 하얀색의 불투명 유리 접시는 박선민 작가.

새롭게 출시된 '진초팩'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진 우리나라 서해의 고운 클레이를 조밀한 사이즈로 담아 모공과 잔주름 사이 등의 노폐물을 확실하게 제거한다. 한방 허브 콤플렉스와 자연 유래 PHA 성분은 뛰어난 피부 정화 효과와 각질 관리를 도와주고 마르지 않는 젤 크림 타입으로 땅김 없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신제품 '백삼팩'은 귀한 백삼 성분이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실크처럼 매끈한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스크럽 효과와 마스크를 동시에 누리며 샤워하는 동안 고급 스파 케어를 받는 듯한 감각적인 경험을 전달한다.

'여윤팩'과 '옥용팩'은 효능을 강화해 리뉴얼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마스크 부문 1위에 올랐던 오버나이트 수면 마스크팩인 '여윤팩'은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대추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난 석류 추출물로 구성된 여윤홍류액™이 자는 동안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윤기와 생기 가 넘치는 아침 피부를 선사한다. 피부 친화 텍스처의 촉촉한 보습막 덕분에 사용하는 동안 답답하지 않고, 컴포트 웨이브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된 한방 아로마 향을 통해 마음의 진정과 평안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8,900만 개 이상 판매된 '옥용팩'은 그 명성에 걸맞게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속 시원하게 빼내내는 필 오프 팩이다. 항산화력이 뛰어난 옥죽(등굴레)과 우더와 던오버를 도와주는 금은화 추출물이 맑고 결이 고운 피부로 가꿔준다.

각종 자극으로 다양해진 피부 고민을 설화수의 4가지 팩 컬렉션으로 더 지혜롭고 보다 깊이 있게 관리하며 맑고 윤기 흐르는 피부 바탕을 누려보자. S

medicine-based complex and natural PHA ingredients that help cleanse the skin and exfoliate dead skin cells. Its gel cream-type formula keeps the skin moist and prevents the mask from drying up, and makes sure it does not stretch the skin too tightly. Another new product, the "White Ginseng Radiance Refining Mask," adds a silky smooth glow to the skin by gently removing dead skin cells and bodily waste products using one of the rarest and most precious ingredients in the world - White Ginseng. The product functions both as a scrub (exfoliator) and facial mask, offering a sensual experience that you would typically expect from a high-end spa treatment simply through taking a relaxing shower.

Sulwhasoo also launched renewed versions of "Overnight Vitalizing Mask" and "Clarifying Mask" featuring much stronger efficacies. The Overnight Vitalizing Mask, which retained its top rank in the overnight face mask category for four consecutive years between 2015 and 2018, now comes with a new Nutritive RED Elixir™ formula featuring pomegranate extract. Pomegranate is an ingredient known for its excellent antioxidant properties. Overall, the renewed Overnight Vitalizing Mask supplies ample amount of moisture and nutrition overnight to deliver radiance and energy to skin in the morning. The hydrating moisture layer created by the skin-friendly formula keeps the skin from feeling stuffy and clogged up, while the herbal aroma from the Comfort Wave Technology™ calms and soothes your mind and skin. Last but not least, the Clarifying Mask, with sales of more than 89 million units worldwide, is a peel-off mask which delivers the level of performance its reputation commensurate with - completely removing dead skin cells and bodily waste from the skin.

옥용팩

항산화력이 뛰어난 한방 성분이
화사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고,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밀착력 있게 발려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필 오프 마스크. 피부 결이 정돈되고
모공을 품은하게 잡아주어 매끄럽고
고운 피부를 완성시킨다.
150ml 4만8000원대

여윤팩

밤 사이 수분과 영양을 집중 공급해
다음 날 피부 본연의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한방 슬리핑 마스크. 피부
친화 텍스처로 자는 동안에도 편안하게
수분 손실을 줄이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한결 탄탄한 피부는 물론
한방 아로마 향은 마음의 진정과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120ml 5만8000원대



연한 베이지색의 비정형 접시는 정지원 작가. 분홍색 원형 접시와 미니 접시는 모두 김남희 작가.

인삼, 아름다움의 근간이 되다 Ginseng, the Foundation of Sulwhasoo's Vision for Beauty

설화수에게 인삼은 특별하다. 설화수의 시작이고 뿌리이며 어질고 귀한 존재다. 경이로운 생명력과 치유력을 품은 인삼을 아름다움의 근간으로 삼은 설화수의 선택은 완벽하고 탁월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아시아의 지혜를 품은 인삼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였다. 특히 한국 땅에서 재배된 고려 인삼은 여느 인삼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효능을 지녔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의서인 <동의보감>은 ‘신이 내린 약초’라고 부르며 수많은 질병에 인삼을 처방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고려 인삼의 약리 성분인 사포닌이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어 현대에서도 여전히 건강을 지키는 묘약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적의 재배 환경과 까다로운 재배 기술을 발전시켜 인삼의 주요 약리 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월등히 높은 고려 인삼은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회장의 혜안으로 설화수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개성이 고향으로 고려 인삼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서성환 회장은 인삼의 피부 효능을 밝혀내는 뷰티 인삼 연구를 시작해 1966년 설화수의 모태이자 인삼을 화장품 원료로 한 ‘ABC 인삼크림’을 처음 선보였다. 이후 60년을 이어온 꾸준한 연구로 인삼의 진귀한 효능을 밝혀내 설화수 제품에 신비롭고 경이로운 비밀을 담을 수 있었다.

The crowning achievement of Sulwhasoo's relentless research in Ginseng, is a core substance known as Ginsenomics™. Ginsenomics™ features a rare type of Saponin that is enriched more than 6,000 times using cutting-edge bio-technology available exclusively at Sulwhasoo. Although a typical Ginseng plant contains more than 30 different types of Saponin, the Saponin used in Ginsenomics™ is a particularly rare type, found in minuscule amounts only, and is known to deliver the best anti-aging benefits on human skin among all Saponin substances. Ginsenomics™ delivers anti-aging benefits by supplying a rich source of powerful renewing energy deep inside the skin. This helps the skin retain its natural vitality and strengthen its capacity to respond actively against changes to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other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uses Ginsenomics™ to take anti-aging to the next level by not only erasing any traces of aging, but also keeping the skin radiant and glowing even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outstanding benefits of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are based on the capacity of Ginsenomics™ to penetrate deeply into all layers of the skin that con-





자음생에센스

인삼 에너지를 6,000배 이상 농축한
활성부티사포닌 진세노믹스™가 담긴
탄력 안티에이징 애센스 피부의 탄력이
필요한 곳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피부
속부터 채우고, 구조를 바로 세우고, 눈에
보이는 주름을 당기는 3중 마이크로 타겟팅
탄력으로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한다.
30ml 13만원 50ml 20만원

설화수의 인삼에 대한 오랜 집념과 연구는 자음생라인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믹스™(Ginsenomics™)로 펼쳐진다. 고려 인삼의 유효 성분인 30여 가지 사포닌 중에서도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극미량의 희귀 사포닌을 6,000배 이상 농축하는 비범한 바이오 기술을 통해 활성부티사포닌 진세노믹스™를 완성했다. 진세노믹스™는 인삼의 강인한 자생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전하는 안티에이징을 선사해 피부가 본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내부의 힘을 길러 외부의 변화와 유해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이끈다.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이자 독자적인 기술로 탄생한 진세노믹스™의 정수는 자음생에센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진세노믹스™가 피부 탄력과 관련된 모든 층에 깊숙이 스며들 어 피부 자체를 단단하게 재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점점 깊어지는 주름은 물론 피부 처짐으로 얼굴 라인이 무너지는 등 노화가 진행될수록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자음생에센스를 통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은 무엇보다 든든하다. 이는 일차원적인 수준의 안티에이징이 아닌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마이크로 타겟팅 탄력으로 총총이 쌓인 피부의 여러 구조를 동시에 복구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피부 방어력을 강화해 예방적 안티에이징까지 해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 8월 새롭게 선보인 자음생앰플은 설화수의 인삼 연구 혜리티지 결정체인 진세노믹스™와 귀하게 얻은 진생베리 성분을 담아 궁극의 인삼 안티에이징을 전한다. 설화수의 활성부티사포닌 진세노믹스™는 피부 구조 물질인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노화의 흔적을 빠르게 개선하고, 진생 베리는 자극받은 피부의 진정과 회복 효과가 뛰어나, 이 둘의 시너지가 응급 상황에서 피부를 집중

trol its overall resilience, formulated to help the skin completely rebuild its structure. Most importantly,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assures consumers by simultaneously solving multiple skin-related concerns that manifest with aging, such as deeper wrinkles and the collapsing facial profile due to sagging skin. The Serum is not a one-dimensional solution to aging - it is a triple micro-targeting technique that simultaneously boosts skin resilience to restore the structure of each layer inside the skin and encompasses preventive anti-aging efficacies.

The Concentrated Ginseng Rescue Ampoule (new product launched last August) delivers the ultimate Ginseng anti-aging experience with a combination of Ginsenomics™, which represents the pinnacle of Sulwhasoo's Ginseng research heritage, and the rare Ginseng Berry. Sulwhasoo's Active Beauty Ginsenoside, Ginsenomics™, accelerates the synthesis of a substance called collagen inside the skin. This quickly improves signs of skin aging. Ginseng Berry plays its part by helping soothe irritated skin and offering excellent recovery benefits. The synergy between these two substances results in intensive skincare in emergency situations. Though applying the ampoule once is enough to experience noticeable benefits, applying a full bottle over a three-week period can significantly alleviate signs of aging, including deeper wrinkles and dilated skin pores. The Concentrated Ginseng Rescue Ampoule is the only product of its kind to feature rare substances extracted from Ginseng Berries using Sulwhasoo's exclusive technology. It can only be harvested once throughout a Ginseng plant's entire life cycle. For a plant to be harvestable, the Ginseng has to be at least 1,000 days old. The Ampoule is special in terms of its design (container design) as

적으로 케어한다. 덕분에 단 한 번 사용만으로도 효능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3주간 한 병을 모두 사용하면 주름, 모공 등 노화에 의한 흔적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 특히 진생베리에서 얻은 진귀한 성분은 1,000일을 넘게 기운 인삼에서 단 한 번, 일주일만 수확 가능한 회소 원료로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연구를 통해 자음생앰플에 담았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진생베리와 진세노믹스™를 구분해서 담아두었다가 사용 직전에 합쳐서 섞일 수 있도록 한 용기 디자인도 특별하다. 가장 신선하고 효능이 극대화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설화수의 정성이다.

인삼의 힘으로 시간이 멈춘 듯 젊음을 유지해주는 진세노믹스™의 안티에이징은 자음생에센스와 자음생앰플을 통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선사한다. 더욱이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더블 레스큐 시너지는 급격한 피부 컨디션 저하와 외부 자극에 의한 손상을 회복시키고, 피부 결과 촘촘한 탄력을 다져 한결같이 젊은 피부 바탕을 누리게 한다. 365일 탄탄한 피부를 유지하게 하는 자음생 루틴은 설화수 인삼 과학이 전하는 귀한 선물이다. 8

well. The rare and precious Ginseng Berry extract and Ginsenomics™ are kept separately, and you can mix the two ingredients together just before application. This is Sulwhasoo's way of keeping each ingredient as fresh as possible, maximizing their combined efficacies upon application. Thanks to the anti-aging benefits of Ginsenomics™, which keeps the skin youthful even as time goes by,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and Concentrated Ginseng Rescue Ampoule can deliver a delightful anti-aging experience. Using both products together can generate positive synergy and boost skin resilience even further. Not only that, the combination of the Serum and Ampoule can help the skin recover from sudden deterioration or damage caused by external stimuli. Ultimately, both products offer dense and resilient skin that constantly retains youth every day. The beauty routine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products is a precious gift from Sulwhasoo's Ginseng science. Keep your skin firm every day with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자음생앰플

설화수의 활성뷰티사포닌 진세노믹스™에 귀하게 얻은 진생베리를 더한 인삼
효능 결정체 앰플, 설화수만의 기술로 고농축한 진생베리 성분은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모공, 주름, 탄력 등 복합적인 노화의 흔적을 빠르게 개선해준다. 진세노믹스™와 진생베리의 두 가지 저형을 위아래 따로 담았다가 사용 직전에 합쳐서 가장 효능이 극대화된 신선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디자인하였다. 20g 13만원





투명, 혹은 불투명의 세계

Kim Dong Wan

김 동 원 유 리 공 예 가

땅에서 얻은 규사에 불의 기운을 더하고, 다시 사람의 호흡을 넣었으니, 유리공예는 자연과 사람의 합심이 만든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시간을 다투야 온전한 형태와 색감을 얻을 수 있기에 유리공예가는 요령을 모른다.

자기보다는 심지가 굳어 보이는 유리공예가 김동완을 만났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

오랜 역사를 가진 유리공예의 '매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그동안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는 물론 요즘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을 정도로 유리공예는 다양한 매력을 가졌습니다. 유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던 첫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학부 시절 고체였던 유리 덩어리가 가마 속에서 마치 용암처럼 주황색 액체로 녹는 황홀한 광경을 봤을 때였죠. 유리는 사람의 수고가 더해질수록 거친 표면이 투명해지면서 본연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작업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발견되는 유리의 매력은 여전히 거부할 수 없죠.

그런 물질적 유연성을 가진 유리공예의 많은 기법 중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요? 유리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융된 유리를 성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형된 유리 표면을 다시 가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저는 불에 녹은 유리를 쇠파이프 끝에 말아 들고 입으로 불면서 형태를 완성시키는 블로잉(blowing) 기법을 주로 씁니다. '유

Glass crafts has been a staple in human history for so long. Why do you think glass crafts has such great appeal? I still remember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beauty of glass. I was an undergraduate student back then. One day, I had a chance to see the fascinating spectacle of solid glass melting into an orange liquid, almost like lava, inside a kiln. Glass is a unique material. The more you put your effort into it, its rough surface becomes clearer, and if you work hard enough, you get to see the true nature of glass.

Glass is a pliable material, which means you can apply a myriad of different crafting techniques. Which technique do you use most often? If you look at glass crafts from a broader perspective, you have two branches of crafting techniques. One is to shape molten glass, and the other is to reprocess an already molded glass surface. I usually use the blowing technique, which involves rolling over a molten glass at the end

리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솜씨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고된 작업이지만 그만큼 성취감이 높을뿐더러, 인간의 숨을 불어 넣어 완성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옻칠을 한 작품들은 외형적으로 유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본질이 보이듯, 자세히 보면 여러 겹의 옻칠을 벗겨낸 사이로 유리의 속살이 보일 겁니다. 기술적 선택으로 유리와 옻칠의 접목을 시도하다 보니, 유리 자체의 아름다움을 옻칠로 가려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옻칠을 걷어내는 추가 작업을 시도했고, 그것이 제 작업의 특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형태와 빛깔이 두 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점에 작업의 중점을 두나요? 경중을 따지기보단 둘의 조화에 무게중심을 둬야겠지요. 그래도 굳이 편을 가르자면 색감일 겁니다. 유리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색감을 낼 수 있는데, 저는 옻칠을 통해 저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무궁무진한 색감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제 작업물 가운데 옻칠을 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래도 색감보다 형태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유리에 소다로 기포를 발생시킨 '포그 시리즈'는 유리의 투명성에 형태미를 강조한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리에 옻칠을 올릴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의도가 있었다면 남다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에 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그런 작업의 전례가 있고, 금속과 옻칠을 접목시킨 다른 작가들의 작업들도 있어서 참고는 됐지만, 저만의 방식을 개

of a metal pipe to create the shape I am looking for. Often known as the pinnacle of glass crafts, glassblowing requires skilled workmanship and a high degree of concentration because you have to create the desired shape within a very short limited amount of time. It is hard work. But if you get it right, it gives you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Also, symbolically, you feel like you have breathed a life into something you have created.

Lacquered glass pieces do not feel like glass in terms of their appearance or texture. When I first attempted this technique to bring glass and lacquer together, I had second thoughts because I felt like I was burying beautiful glass behind a thick layer of lacquer. That is why I scraped off some of the lacquer, which I spent a lot of time and effort applying it in the first place. Fortunately, that decision to remove the lacquer gave my lacquered glass pieces a distinct look.

Crafting glass hinges on two axes - shape and color. Which do you put more emphasis on? For me, it is not a matter of choosing one over the other. I always try to focus on balancing the two. Still, if I had to choose one, I would choose color. You can create a variety of colors with glass alone. But varnishing glass with lacquer presents me with an infinite spectrum of colors I've never even imagined using before. When I create something without using lacquer, I do focus more on shape than color.

Can you tell us how you came up with the idea to varnish glass with lacquer? If I had to summarize why I did it in one sentence, I would say I did it to develop a unique effect that was different from everything



김동완 작가는 유리 냉어리가 용암처럼 주황색 액체로 녹은 모습에 매료되어 유리공예의 다양한 매력을 손수 전하고 있다.



유리 자체로 이름답고 다양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고, 옻칠을 올려 작가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색감을 찾아낸다.

벌하는 과정이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작품의 성격에 따라 유리의 표면을 거칠게 연마해 접착력을 높인 상태에서 일반 옻칠을 올릴 때도 있고, 매끈한 표면에도 사용 가능한 유리용 옻칠을 선택해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표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색화병 시리즈’라고 명명한 작품들로, 유리가 얼마나 다양한 색감을 가졌는지를 응변하고 싶은 제 마음이 담긴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리는 정말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선택에 따라 색감을 변주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형태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선조들의 형태미를 변용해 저만의 스타일로 풀어내었고요.

수많은 공정 중 어떤 때 가장 긴장감을 유지하나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불로잉 기법은 유리가 용융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도 한눈을 팔아선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심

else used in glass crafts. But it took plenty of trials and errors. I spent a long time trying to overcome the technical difficulties of combining lacquer with glass.

Can you give us a brief description of the pieces featured on the cover? I call it the “Color Vase Series,” and it reflects my desire to show just how many colors you can produce with glass. Fundamentally, glass itself can accommodate a wide variety of colors, and it can make variations and be altered into different color schemes depending on the artist’s decision. In terms of shape, I took the shapes our ancestors loved to use and reinterpreted them into forms that reflect my distinctive style.

Crafting glass is a long process with a number of different steps. Which keeps you on edge the most? As I explained earlier, the blowing technique that I frequently use requires shaping the molten glass while

이 흐트러질 수 있고, 작은 이물질로도 작업 자체가 허사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긴 파이프 끝에 매달린 무거운 유리를 다루기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온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글로리홀 (glory hole)을 이용하게 되는데,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리고, 차가워도 안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 이죠.

완성된 예술이란 없을 겁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어떤 작가적 숙제를 안고 있나요? 세상의 주목에 따른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제 감성을 성실히 담아낼 수 있기를 작가로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유리는 불변하는 물질이고, 옻칠은 시간이 쌓이면 색감이 더 깊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를 다루는 저 자신도 소재의 특성을 닮고 싶습니다. 열정을 잊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작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람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S

it is still pliable enough. Thus, it requires constant attention. One slip up can end up ruffling the center of gravity, and even a minute foreign substance can ruin the entire process. Of course, handling a long pipe with heavy molten glass at the end is not an easy task either.

Artists often say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completed” art. Right now,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work on as an artist? As an artist, I really hope I can overcome the increasing pressure coming from more people starting to notice my work. I want to improve my technical skills and at the same time reflect my emotions and style on my work as genuinely as possible. Glass stays constant once it is processed. But lacquering matures within time in terms of its color. I want to resemble the nature of those two materials I work with. My ultimate goal is to become an artist who matures within time, yet retains his passion for his work. That is my wish. It is what I hope to work on as I move forward.



아무렇지도 않게, 베케 Jeju, VEKE

제주, 베케

한국의 정원은 '차경借景'이라 해서 자연의 경치를 '빌린다'는 개념을 지닌다. 소유하지 않고 잠시 빌리는 것. 이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본래 모습을 아름답다 여기는 태도다. 제주 베케에서 만난 정원은 들판이나 숲에서 본 말간 얼굴의 자연, 그대로였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베케에서 잠시 머물고 거니는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끼고 정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다.

책장을 가득 채운 ‘소년소녀 세계명작전집’ 중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정원〉이었다. 고집 센 외톨이 소녀와 병약한 소년이 담쟁이넝쿨 너머 숨겨진 폐허가 된 정원을 발견하고 함께 가꾸는 이야기. 황량했던 그곳이 정성스런 손길 아래에서 아름답게 변해가는 동안, 상처투성이었던 아이들의 영혼도 점점 치유된다. 그 이후였을 것이다. 책이 주는 뭉클한 감동과 함께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다는 로망이 생겨난 것은.

제주 서귀포에 자리한 ‘베케’는 카페이자 너른 정원이다. 당연히 영어라고 생각한 ‘베케’는 제주 말이었다. 쟁기로 농사를 짓던 시절, 땅을 일구다 나온 돌들을 밭 경계에 쌓아둔 돌무더기를 뜻한다. 실제로 굴밭이었던 이곳엔 큰 베케가 있었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정원이 조성되어 이름이 되었다. 베케를 만든 ‘더 가든’의 김봉찬 대표는 식물학과 생태학에 중심을 두고 지속 가능한 자연주의 정원을 만드는 조경 전문가다. 작년에 오픈한 ‘아모레 성수’ 속 정원도 그의 솜씨다. 성수동의 자동차 정비소였던 회색빛 공간을 문명에서 떨어져 내밀하게 숨어 있는 듯한 숲의 이미지로 바꿔놓았다. 베케 역시 ‘아모레 성수’와 마찬가지로 자연주의, 생태주의 정원을 지향한다. ‘보기 좋은’ 정원이 아닌,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김봉찬 대표의 생태학적 경험과 의지 그리고 설치미술가 최정화 작가의 공간에 대한 감각이 어우러져 이곳이 완성되었다. 입구정원, 돌담정원, 고사리정원, 빗물정원, 이끼정원, 그늘정원, 목련과 만병초정원, 폐허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정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이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VEKE” in Seogwipo, Jeju, is a cafe. But it is also a wide-open garden. It is a popular destination among visitors traveling to Jeju, thanks to its beautiful landscaping features. During peak hours, it is extremely hard to find empty seats.

“VEKE,” which most people assume is English is in fact, a word originated from the Jeju dialect. It refers to small mounds of rocks farmers would pile up back in the days when they used to weed out rocks from the ground using hand plows. The land where cafe “VEKE” stands today used to be a mandarin orchard. The orchard had a fairly large veke. Instead of removing it, the owners decided to build a garden around it and named the structure “VEKE.”

Kim Bong-chan, CEO of “The Garden” and founder of “VEKE,” is a landscaping expert who focuses on botany and ecology in creating sustainable, naturalistic gardens. Most recently, Kim led the “Amore Seongsu” project, which opened last year. He transformed an old auto mechanic’s garage in Seongsu-dong that was full of lifeless gray shades into an almost forest-like venue filled with nature, tucked away from modern civilization. Similar to “Amore Seongsu,” “VEKE” aspires to be a naturalistic and ecological garden. “VEKE” was built based on Kim’s experience in the ecological field and the spatial design of installation artist Choi Jeong-hwa. Featuring welcome garden, stone wall garden, fern garden, rainwater garden, moss garden, shade garden, magnolia and rhododendron garden, and the ruins garden, a light stroll through “VEKE” is enough to give every visitor a dramatic and diverse experience. If you follow the small signpost and step inside “VEKE,” just beyond a modest rock wall, you will come across a cozy-looking garden that might remind you of fields in the wild. The garden is full of flowers with



족족하게 젖어 더 생생한 베케 정원. 제주 여행에서 비를 만났을 때 잠시 쉬어 가기엔 더할 나위 없다.

작은 이정표를 따라 베케에 들어서면 야트막한 돌담 앞에 야생의 들판을 연상케 하는 아늑한 정원이 펼쳐진다. 이름 모를 꽃들이 만개한 와중에 곳곳이 갈색으로 메말라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나무들도 보인다. 피고 지고 하는 생의 주기가 서로 다른 생명들이 사이좋게 공존한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극장의 와이드 스크린처럼 드넓은 통창 밖으로 푸른 정원이 펼쳐진다. 언덕처럼 쌓여 있는 검은 돌무더기와 이끼, 고사리, 나무들이 가진 각기 다른 선과 색이 절묘한 레이어를 이룬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더욱 잘 볼 수 있게, 카페 내부 바닥은 웜푹 들어가 내려가는 형식이다. 그래서 통창 앞의 의자는 마치 연극 무대 앞 관객석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야말로 자연이 주인공인 공연이다.

정원에 나서면 탁 트인 공간에 식물들이 가득하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순간순간 다른 풍경을 마주한다. 폐허정원에 이르니 그 이름처럼 횡량한 짐터가 나타났다. 허물어진 벽과 녹슨 철골 등 철거된 건물의 흔적으로 어지러운 폐허 위로 무성하게 생명들이 피어나 있다. 폐허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어떤 혼란은 그대로 두어야 오히려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정원은 주변과 함께 아름다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동물, 사람, 건물마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원이 하는 일이죠. 곁에 있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저 인간이 만든 조형 물일 뿐이에요. 자연을 공부하고, ‘내가 지구에 온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봉찬 대표의 말처럼 베케는 자연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 생과 멸이 교차하는 우주의 순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검은 돌무더기 위로 비죽 피어나는 들꽃처럼, 베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있었다. S

공간마다 특유의 장면을 품고 있는
베케는 결국 카다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연으로 만들어낸
흔치 않은 드라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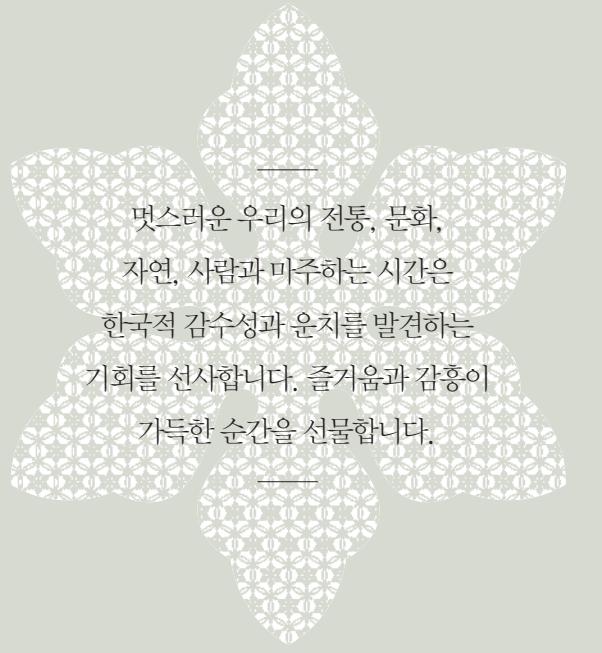
names you probably would have never heard of before, and few dried up brown trees can also be seen waiting for the next season. Various plants with different life cycles coexist harmoniously in the garden.

When you pass through a narrow passageway and enter the building, you will see a green garden outside a wide window similar to a wide-screen movie. This garden has black stones piled up in the shape of a small hill and an exquisite variety of different lines and colors created by a combination of moss, fern, and trees. To give visitors a better view of the garden, the café floor is sunken into the ground.

If you head outside, you get to walk into a wide-open space filled with a number of different plants. As you walk along the little trail across the garden, you will be surprised by its scenery. At every turn, you can expect to see something new.

“A garden is a place that needs to be beautiful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s. A real garden makes animals, people, and buildings around it beautiful. No matter how expensive and wonderful a tree is, no matter how marvelous a pond is, if they fail to blend in with the things around them, they will never be anything more than man-made installations. I want to study nature and create a garden that reminds us of why we were born on this earth.”

Just like Kim's words, “VEKE” was a place to study nature and further immerse myself in the cosmic energy flowing through the cycle of life and death. What are we doing on this pale blue planet? Just like the wildflowers blooming on the pile of black stones, “VEKE” stood there with all the serenity in the world.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누리다





빛나는 보석은 시간으로 다듬어진다 Time Transforms Toughly Hewn Gemstones into Shining Jewels

이정은 & 정경화

한철 스치고 만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아름답다는 건 오래도록 머물며 함께하는 것이다.
투박한 광물이 보석으로 빛나기 위해 오랜 시간 다듬어지듯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시간의 빛을 진다.
정해진 기준 없이 매 순간 아름다움은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깊어진다.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에 함께한
바이올리ニ스트 정경화와 배우 이정은이 그들의 생으로 증명한 진짜 아름다움에 대하여.

글 이제영

생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바 이 올 리 니 스 트 정 경 화



긴 시간 무대 위의 정경화는 직선의 활처럼 한결같았다. 어느 상황이건 무대 위에서는 음악에 담긴 아름다움을 모두 주려고 노력했다. 거장의 마음을 안다는 듯 아름다움은 여전히 그녀 곁에 머물고 있다. 인류를 떠나지 않는 바흐의 선율처럼 그렇게.

아름다움을 심기 위해

자신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리를 쥐어뜯던 정경화는 세월의 바람을 타고 부드러워졌다. “평생 참 힘들었어요. 끝까지 나를 몰아붙였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연습했어요.” 여전히 완벽을 추구하지만 이젠 알게 됐다. 인간에게 완벽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부상을 겪고 나 이를 먹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편안해졌다. “현은 예민해요. 아주 조금만 빗나가도 다른 소리가 들리죠. 전엔 그게 참 싫었죠. 요즘은 한 치의 오차 없는 소리가 아니라 조화로운 하모니에 더 신경 쓰여요. 얼마나 풍성하게 다양한 색감을 전달할 것인지, 나의 느낌을 고스란히 음악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죠.”

그녀는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찾아보고 가까이하는 일들에 매료되어 있다. 외적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보다 내적 충만을 위한 일이 훨씬 즐겁다. 온갖 음악이 들어 있는 유튜브로 명곡, 명연주를 듣거나 좋은 전시 소식이 들리면 모자를 폭 눌러쓰고 미술관에 간다. 정신이 맑아지는 시간들. “전시 도록을 사와서 식탁 위에 펼쳐놓고 틈날 때마다 봐요. 마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예술이라는 것이 다 통하는 데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미술을 통해 예술적 영감을 받곤 했죠.” 전 세계에서 연주를 하며 아무리 바빠도 미술관에 꼭 들렀다는 그녀. 그날 본 강렬한 그림 한 점에서 받은 압도적인 영감이 무대에 고스란히 펼쳐진 일도 종종 있었다. “아름다운 꽃 하나를 사람들 가슴속에 피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고통 속에 나온 창조의 결실은 큰 감동을 주죠.” 그걸 알기에 완벽한 소리를 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하다. 진짜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Planting the seeds of beauty

As a young woman, Kyung Wha Chung used to tear her hair out whenever she thought her performance was dissatisfying and did not meet her own standards. However, Chung says time has rounded out some of her rough edges. “I made things tough for myself throughout my entire life. I always drove myself to the brink. I practiced so hard to the point I felt I couldn’t even breathe.” Chung still worships perfection. But she now understands that perfection is an impossible ideal for a human being. After coming across injuries and all the hardships of time, Chung ultimately became more at ease with herself. “String instruments are sensitive. A small deviation can make a completely different sound. In the past, I hated that. Now, I care more about creating beautiful harmonies, rather than producing pitch-perfect notes. I focus on how rich and colorful I can make my music, and how I can convey my feelings using melodies.”

My beautiful seventies

Her seventieth birthday came without much fanfare, although the media did ask what it felt like for a great artist, who was still very much active and hard-working to stay on top of her game, to turn seventy years old. “Do you feel your age?” reporters asked. Chung said, “I felt more anxious and depressed

아름다운 나의 일흔

그렇게 맞은 일흔. 언제나 현역인 위대한 아티스트가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일흔이 되었을 때 매스컴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나이를 실감하십니까? “칠십이 되기 전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울적했어요. 그런데 일흔이 되는 그날 아침에 눈을 뜨니 어제와 다른 게 하나도 없더군요. 왜 우울해했나 멋쩍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숫자 앞에 멍칫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연주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요. 감사한 일이죠.” 매사에 감사한다는 거장이 일흔에 내놓은 서른세 번째 앨범 제목은 ‘아름다운 저녁 Beau Soir’이었다. 한 곡 한 곡 연주를 듣고 있으면 따뜻함이 끝없이 변지는 노을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자신이 줄 수 있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심어주려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에 합류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 마음과 같았어요. 시공을 뛰어넘는 울림이 있었죠. 음악이 주는 감동이 그리하듯이 아름다움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죠. 각자의 인생, 나름의 모습. 과정 하나하나가 고귀하니까요.”

바이올린을 지독히 사랑해왔고, 그만큼 관객의 박수를 받은 건 큰 축복이었다. 무대에 서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간 노력했지만 끝이 없는 음악의 깊이 앞에서는 여전히 아득하다. 일흔이 넘는 나이 지금까지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생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고통의 시간, 환희의 시간, 정경회를 만들었던 삶의 모든 시간이.

leading up to my seventieth birthday. But when I opened my eyes in the morning I turned seventy, I realized everything was exactly the same as yesterday. I was really glad. All I focus on is the fact that I can still play my music for people. It's a blessing." "Beau Soir" is the 33th album from Chung, still revered as a virtuoso in the world of music. Listening to her performance of each song is enough to make any listener feel as if they are standing in the warm glow of an endless sunset stretching out into the distance. Even at the age of seventy, an age she says is a blessing to continue playing music, Chung is able to clearly reflect her desire to convey the beauty of music within every single notes.

And that very desire to deliver the beauty of music inspired her to join Sulwhasoo's "Beauty Grows" campaign. "The message Sulwhasoo desired to convey to the world was in line with what I believed in my heart. It touched my heart beyond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Similar to the emotions music instills in people, you can't describe beauty as a one-dimensional element. It depends on each person's life and appearance. And every single step is important in itself."

Chung says it was an unimaginable blessing to live a life so utterly in love with the violin, and a life filled with the applause and acclaim from an audience that adored her. Chung worked countless hours to be able to perform on stage, yet she admits she is nowhere near to understanding just how beautiful and insightful music can be. It is no less than a miracle for Chung to keep on playing music so elegantly to her seventies. Looking back, she says everything - the agony, the joy, and every moment that made the Kyung Wha Chung the artist she is today – was genuinely beautiful.



경험의 주는 진짜 아름다움

배우 이정은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당당히 레드카펫을 밟는 모습은 엄마도 기정부도 동네 이줌마도 아닌 배우 이정은 그 자체였다. 즐거운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부셨다. 늦게 빛을 봤다고 하지만 그녀에게 빛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한번도 제자리에 멈춰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지 않은 것

“무대 연기가 좋았고, 연극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고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했죠.” 첫 무대 위에 올랐을 때 느꼈던 즐거움을 아직 기억한다. 지금도 연기를 할 때면 그 느낌을 꺼낸다. 가슴 벅차게 좋았던 그날의 아름다운 순간을. “무대 연기를 하다가 영화와 TV 연기를 시작하면서 그 즐거움을 잠시 잊었던 적도 있어요. 연극 무대는 관객의 반응이 바로 오는데 영화나 TV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설레면서 두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보니 조금 해지고 걱정도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좋았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왜 연기를 하는지에 대해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이정은 배우. 대중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작품이라면 마다하지 않는다. 같은 엄마 역이라도 작품마다 달라지는 이정은의 연기는 늘 기대를 갖게 한다. “누군가의 엄마들이 그저 엄마이기만 하진 않잖아요. 각자의 사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을 법한 살아있는 인물로 보고 접근을 하죠.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요.” 그녀에게 이름 다음도 이와 같다. 각자 다 다른 것. 같지 않은 것. “제 고인이 된 일본 배우 키키 키린을 좋아하는데요. 그 배우의 연기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요.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풍기는 특유의 정서지요. 키키 키린뿐 아니라 중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온 선배 배우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월이 쌓이면서 생기는 것들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Everything is different, and nothing is the same

Above all else, Lee says she has spent her entire career trying to remember the reason she was acting in the first place. Lee's desire to build a legacy as an actor willing to engage the public on a variety of subjects and issues is what drives her to take on virtually any role that might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eople.

Even when she's asked to perform the same role as a mother, Lee changes her performance in dramatic or subtle ways, which is perhaps why people always look forward to seeing her on the screen. “We can't combine every mother into one big group. Every mother has different story, and different personality. I see each mother I play as a real person that people might expect to see in their everyday lives. That's my approach. No one lives a same life as other person.” Beauty, as a concept, works same for her. Everyone possess different types of beauty. “I love the work of the late Kirin Kiki, a Japanese actor who passed away couple of years ago. When you watch her acting, you can really feel the love she has for people. It's a unique ambiance and performance only a person who has lived a full life can deliver. It's not just Kirin Kiki. When I see the work of some of the middle-aged or older actors, I think they're so beautiful. I love the type of beauty a person starts to emanate as time goes by. Wrinkles that start to appear one after another are a good example. To me, that's what real beauty looks like.”

이정은답게

타인의 기준에 속박되지 않아 더 빛나는 그녀야말로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에 꼭 맞는 모델이었다. 그녀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주변 반응도 좋았어요. 여기저기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미의 기준을 새롭게 세운 거잖아요. 가려웠던 곳을 긁어줬다는 사람도 있었고, 미치 깨우치지 못한 걸 말해줘서 고맙다는 분도 계셨어요. 가슴이 뭉클했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름다움은 시간에 흘러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이번 캠페인은 이왕이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그의 바람에 맞는 좋은 경험이었다.

요즘 이정은은 주말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촬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 성실히 임하는 게 당장의 큰 목표예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시간이 나면 그녀는 동료 배우들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한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와 스스로의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걸 비워내는 시간이다. 주변 풍경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속도대로 걸으면서 이정은만의 아름다움을 키우는 시간. 그렇게 이정은의 아름다움은 오늘도 자란다. S

Being true to Lee Jeong-eun

Lee's star shines brighter because she refuses to tether herself to the conventions that others expect her to follow. That made her the perfect model for Sulwhasoo's "Beauty Grows" campaign. Lee herself accepted the offer with open arms as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tell people about her story through a campaign that cherishes values that very much resembled her personal values. "The reaction I got from people was great. Plenty of people shared their words of encouragement. In a way, I helped set a new standard for beauty. Some people told me that I scratched the itch no one had been able to get to throughout their entire lives. Others thanked me for opening their eyes to something they hadn't realized before. A few of my friends got really emotional about this campaign. I think it gave a lot of people, who had already given up, thinking that their youth and beauty would simply disappear with age, a chance to realize that they are always in their most beautiful self today." This campaign was a great experience for Lee, as it closely accords with her personal mission of having a positive impact on other people.

Recently, Lee spends all day filming a TV series. "Right now, my priority is to do my best and make sure every shoot goes well. If I get some spare time, I really want to study another language."

When Lee has time, she goes for a walk with her colleagues and her dog. It is her way of freeing herself from the scrutinizing eyes of the public as well as from the pressure of her own desires. She paces herself and focuses on the surrounding landscape to make sure she grows her own form and style of beauty. Every day, beauty grows for Lee Jeong-eun.



정성이 닿아 ‘옻’ 피우다

옻나무 수액에 색을 더하는 옻칠 공예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천 년의 전통을 넘어 몸에 해를 입히지 않는 천연 도료로, 빼어난 미감으로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공예로 귀환한 것이다. 친란한 유산이 오늘날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빛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 왼쪽 페이지** 1 삼베로 자연스러운 느낌의 볼 형태를 잡은 뒤 베이지 레드, 네이비 컬러로 옻칠한 볼은 양점모 작가 by 옻칠아트 MO.
2 깊은 색감을 옻칠로 다양하게 표현한 다과반은 이종구 작가. *베이지색 배경은 DE6214 컬러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 오른쪽 페이지** 1 옻칠과 자개 장식의 미닫이 문이 있는 장은 박수이 작가 by AREA+.
2 물푸레나무에 옻칠한 칫잔은 박수동 작가.
3 짙은 청색 옻칠 잔은 어비진. 4 빅자 미니 볼과 흑유 다관은 뷰로 파파에. 5 붉은 옻칠한 대나무 원형 볼은 성광명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6 2단 채선 원형 합은 성광명 작가 by 아원공방 삼청점
7 노란색 자개 2단 도시락은 여비진 *핑크 컬러 배경은 DE6109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왼쪽 페이지 1 철에 옻칠한 캔버스는 'merge_2002'로 김옥 작가. 2 '청록 시리즈' 지태칠기
스툴과 벤치는 모두 유남권 작가. 3 두 개의 원기둥을 겹친 철에 옻칠한 'merge low table'은
김옥 작가. 4 천 황토, 종이, 나무에 옻칠한 타원형 상판 소반은 모두 편소정 작가 by
HARTA. 5 옻칠 사이드테이블 '월미로5'는 유남권 작가. 6 활동에 안쪽만 옻칠한 기하학
모양의 컨버전스는 박주형 작가. *그레이 배경은 DE6388 컬러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오른쪽 페이지 1 흑칠한 초화문 해주반은 이종구 작가. 2 동에 옻칠한 불은 이원공방
삼청점. 3 섬세한 장식이 돋보이는 화이트 자개장은 이리지안. 4 유리에 그려데이션으로
옻칠을 입힌 화병과 잔은 모두 정은진 작가 by AREA+. 5 붉은 옻칠 막걸리잔은 옻칠 장인
남송 박강용 작가와 유남권 작가의 디자인 협업. 6 붉은 옻칠 다과반은 이종구 작가.
7 동에 옻칠한 드립 주전자는 아원공방 삼청점. 8 사각 주칠 모반은 배영달 작가.



형 형 색 색, 옻 칠 의 변신

옻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수액은 100cc 남짓! 제대로 색을 내려면 칠하고 굳힌 뒤 다듬는 과정을 10여 차례 반복해야 한다.
그러니 금보다 귀한 재료로 여겨져 왕실의 귀한 용품들의 마감에 사용되었다. 검은 흑칠과 붉은색의 철이 주를 이루었으며 명료하고 영롱한 빛깔은
시간이 지나면서 광택과 색감이 미묘하게 달라하는데 장인들은 이를 '옻이 핀다'고 표현하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옻은 최근 공예작가들에 의해 신선하게 변화하여 과거를 이어 지금도 여전히 피어나고 있다.



건강한 옷의 미학

옻은 이따운 색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천연 방부제로 사용되었다. <팔만대장경>이 700여년 동안 온전한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옻칠을 한 덕분이다. 가구와 식기에 칠해 견고함을 더하고 부패를 막았으며, 특히 식기로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고 별레가 고이지 않는 천연 방부제 그릇이 된다. 이토록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옻을 곁에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온쪽 페이지 1 나무를 깎아 핑크와 하늘색 그레이디션으로
옻칠한 접시는 편소정 작가 by HARTA. 2 연두 컬러 오벌
트레이에는 하문주 작가. 3 노란색 손잡이의 에디션 포크는 박성철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4 핑크색 도트 문양 원형 트레이에는 박수이
작가 by 수이57 아뜰리에. 5 뚜껑이 있는 옻칠 나무 공기는
이종구 작가. 6 옻칠 젓기락은 여비진 7 노란색 원형 수저 받침은
오트오트. 8 겹정 꽃 접시는 박수이 작가 by 수이57 아뜰리에.
9 주황색 오벌 옻칠 도시락은 하문주 작가. 10 잉순접이 옻칠
티원 불은 허명숙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1 옻칠 캔버스 그림 'forest_4'는 박수이 작가
by 수이57 아뜰리에. 2 안蠹을 다른 컬러로 옻칠했던 컨버전스는
박주형 작가. 3 2단 옻칠 도시락은 허명숙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4 원형 옻칠 코스터는 박수이 작가 by 수이57 아뜰리에.
5 로스팅한 나무 기루로 거친 텍스처를 만든 목화 진과
그레이디션 화병은 강정은 작가 by VONZ. 6 베이지, 머스터드
컬러의 원형 건칠 매트는 이종구 작가. 7 활동에 옻칠했던 에그컵은
박주형 작가 by 일무갤러리. 8 등에 옻칠했던 주전자는 박성철 작가
by 아원공방 심청점. 9 민트색 에디션 포크는 박성철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10 활동에 옻칠했던 디저트 플레이트는 박주형 작가
by 일무갤러리. 11 옻칠 유리 서버와 등에 옻칠했던 기죽 손잡이
드리퍼는 모두 김준수 작가 by 아원공방 심청점. 12 등에 붉은
옻칠했던 접시는 아원공방 심청점.



여일하게 흐르는 맑은 물빛처럼

고이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어야 생기가깃든다. 쉼 없이, 머무름 없이 여울을 힘차게 굽이치고, 낫가를 만나면
춤추듯 가벼이 흐르는 물. 길이길이 푸르른 물처럼 설화수의 아름다운 길도 끝없이 이어진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멈 춤 없이 흘러 맑게 씻기다

건강하고 윤택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깨끗한 클렌징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순행클렌징오일과 함께라면 꽤 번거로운 클렌징이 한결 간편하고, 월등히 산뜻해진다. 도톰하고 폭신한
제형을 부드럽게 롤링하면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빠르게 녹여내고 물처럼 씻겨 진여감이 없다.
설화수의 수분 클렌징 포뮬러 '순행청은수™'는 피부 수분력을 강화하고, 연설한방오일컴플렉스는 클렌징
후 모공의 탄력 캐어를 도와준다. 대용량으로 출시되어 세차게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새로운 피부를 오래도록 선사한다. 400ml 7만원대

흠뻑 밀려오는 깊은 청량감

천만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와 하얀 포밀이 부서지는 폭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을 뒤흔들던 큰 파동은 잔잔하고 고요해진다.
세찬 생명력으로 자상한 가르침을 선사하는 폭포는 차연하고 아름답다.
위를 바라지 않고 아래로만 흐르며 겸손하고 굳세게 제 갈 길을 순리대로 가는
어질고 너그러운 폭포 덕분에 희망과 용기가 샘솟는다.



넉넉하고 부드럽게 헤아리는 마음

피부를 곱고 정결하게 가꾸는 첫걸음인 맑은 세안을 위해 순행클렌징폼은 다양한 정성을 담았다.
풍부하고 부드러운 가품을 만들어 피부 노폐물을 말끔하게 닦아내 매끄럽고 깨끗한 피부로 가꿔주고,
설화수의 독자적인 수분 클렌징 포뮬러 순행청은수™가 세안 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땅김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준다. 여기에 상엽과 신약 추출물 등 한방 성분을 더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순행클렌징폼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낙낙한 대용량을 선보인다. 400ml 6만2000원대



땅과 흙의 기운을 전하는 이로운 밥상

기울의 땅은 풍성하다. 땅 위는 다채로운 열매가 제맛이 들어가고, 흙 속에서는 인삼의 에너지가 영글어 꽉 찬다.

예로부터 '명약 중의 명약'으로 인정받는 인삼의 생명력으로 기운찬 기울을 차려 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로쏘스튜디오)



왼쪽 페이지 흥동 위에

명주를 올리고 황색 옻칠로

마무리한 접시는 장성우

작가 | by 부로 파피에

오른쪽 페이지 굽이 있는

흑유 디저트 볶은 소시요

by 부로 파피에

진한 여운의 고소함

인삼 잣죽



재료

인삼 3뿌리, 볶은 잣 1/2컵, 찹쌀 1컵, 물 5컵, 참기름 2큰술, 포도씨유 · 소금 적당량씩
(튀김 반죽) 튀김가루 2큰술, 물 1/2컵

만드는 법

1 인삼은 잔뿌리를 잘라내 정리하고 잘게 썬다. 2 찹쌀은 30분간 불린 뒤 ①의 인삼과 함께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서 쌀알이 투명해지도록 볶는다. 3 ②에 볶은 잣과 분량의 물을 넣고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간다.
4 냄비에 ③을 붓고 찹쌀이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뭉근하게 끓인 뒤 소금으로 간한다. 5 ①에서 제거한
잔뿌리는 튀김옷을 입혀 포도씨유를 달군 팬에서 튀긴 뒤 완성된 인삼죽에 볶은 잣과 함께 올린다.

인삼 요리의 정석

인삼말이 스테이크

주옥 같은 별미
새싹삼 유자소스 관자구이



재료

인삼 2뿌리, 아스파라거스 3개, 통마늘 2개, 샤브샤브용 쇠고기 300g,

래디시 · 포도씨유 · 소금 적당량씩

(꿀 간장 소스) 꿀 2큰술, 간장 · 청주 3큰술씩

만드는 법

1 인삼은 반으로 자른 뒤 채 썰고, 아스파라거스는 필러로 섬유질을 제거한 뒤 먹기 좋은 길이로 썬다. 2 통마늘은 깨끗하게 손질한 뒤 뿌리가 있는 앞부분을 자르고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에어프라이어에서 180℃로 15분간 굽는다. 3 샤브샤브용 고기는 소금으로 밑간 한 뒤 채 썬 인삼을 얹어 돌돌 만다. 4 포도씨유를 두른 팬에서 ③을 굽다가 반쯤 익으면 꿀 간장 소스를 붓고 센 불에서 줄이듯 구운 뒤 ②의 통마늘, 아스파라거스, 얇게 썬 래디시를 곁들여 접시에 담는다.



재료

가리비 관자 8개, 연어 알 1큰술, 올리브오일 · 소금 적당량씩

(새싹삼 유자 소스) 새싹삼 6뿌리, 유자청 · 레몬즙 1큰술씩, 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1 새싹삼은 뿌리 부분을 잘게 썰어 나머지 소스 재료와 함께 믹서에 넣고 곱게 간다. 2 관자는 소금으로 밑간 한 뒤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서 노릇하게 굽는다. 3 그릇에 구운 관자, 새싹삼 잎, 연어 알, 새싹삼 유자 소스를 곁들여 담는다.

왼쪽 페이지 윗질 굽 접시, 컬러 윗질로 정식한 접은 모두 허명우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백자 접시는 조은숙갤러리 활동 위에 명주를 올리고 붉은 윗질로 마무리한 접시는 장성우 작가 by 뷰로파파에.

아낌 없이 즐기는 맛

인삼 편육 냉채

재료

인삼 1뿌리, 새싹삼 4뿌리, 쇠고기 아롱사태 400g, 오이 · 배 1/2개씩, 깐밤 10개, 대파 1개,

마늘 5톨, 물 8컵, 간장 · 청주 3큰술씩, 통후추 1작은술

(꿀 겨자 소스) 겨자 · 꿀 1큰술씩, 식초 · 레몬즙 2큰술씩, 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1 냄비에 큼직하게 썬 대파와 마늘, 물, 간장, 청주, 통후추를 넣고 끓인 다음 아롱사태를 넣고 25분간 삶아 익힌 뒤 불을 끄고 10분간 그대로 둔다. 2 인삼은 3등분한 뒤 오이, 배, 밤과 함께 채 썬다. 새싹삼도 비슷한 길이로 썬다. 3 볼에 분량의 꿀 겨자 소스 재료를 넣고 잘 섞은 뒤 ②를 넣고 가볍게 버무린 다음 얇게 썬 아롱사태 위에 얹는다.



원쪽 페이지 백자 굽 접시, 귀가 달린 백자 숙우는 모두 소사요 by 뷔로 파피에. 긴 직사각형 백자 접시는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불투명한 화이트 유리 컵은 조은숙갤러리. 보라색 원형 접시는 오정실 작가 by 뷔로 파피에.

달콤 쌈싸래한 디저트

인삼 젤편구이 & 청포도 인삼주스



재료

(인삼 젤편구이) 인삼 1뿌리, 꿀 1/4컵, 젤편 12개, 포도씨유 적당량

(청포도 인삼주스) 샤인 머스켓 1송이, 인삼 1뿌리, 얼음 적당량

만드는 법

(인삼 젤편구이) 1 인삼은 잘게 채 썰어 꿀과 함께 냄비에 넣고 끓인다. 인삼의 수분이 날아가면 불을 끄고 식힌다. 2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젤편을 노릇하게 굽고 ①을 곁들인다.

(청포도 인삼주스) 1 인삼은 잘게 썬다. 2 믹서에 인삼, 샤인 머스켓, 얼음을 넣고 곱게 간다.

빛나던 옛 영화를 전하는, 꿈의 궁전

Neuschwanstein & Potala

독일 노이슈반슈타인 & 티베트 포탈라

궁궐, 왕과 그의 가족이 주거하는 공간 거대하고 화려함수록 왕권의 강력함을 상징한다.
이제 그 절대적인 힘은 역사의 물결에 희미해졌지만, 공간에 깃든 정성과 아름다움은 여전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환상의 성을 그대로 닮았다. 시대를 초월한 '이상적인 궁전'의 룰모델이랄까.

생각해보면 동화 속 이야기의 해피 엔딩은 늘 궁전이 배경이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주인공이 그 보상으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곳. 모든 것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궁전이라면 더 이상 슬픔은 없을 것 같다. 삶의 여러 숙제들, 지루하게 반복하는 일상을 벗어나 영원히 즐거운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관문. 월트 디즈니 영화의 오프닝이 아름다운 성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독일 알프스산맥에 솟아 있는 노이슈반슈타인(Neuschwanstein) 성은 디즈니가 오프닝 로고의 모티브로 한 실제 모델이다. 이 낭만적인 중세풍의 건축물은 그동안 수많은 엽서나 퍼즐, 광고 등에 사용되면서 우리가 그리는 '궁전'의 아이콘이 되었다.

독일 바이에른주 퓌센 동쪽에 자리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바이에른의 왕이었던 루트비히 2세가 건설했다.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바이에른은 프로이센에 지배하는 독일에 흡수되어 주권국가로서의 자리를 빼앗겼다. 이름뿐인 왕으로 전락한 루트비히 2세는 현실에서 도피해, 이전부터 숭배했던 중세의 문화와 바그너의 음악으로 이루어진 환상 속에서 은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The Neuschwanstein Castle, sitting majestically in the German Alps, is a real-life model of Disney's opening castle logo. This romantic medieval castle has been featured on numerous postcards, puzzles, advertisements, etc. throughout the years. Today the Neuschwanstein Castle has become an icon and a quintessential example of European castles. Located to the east of Füssen in Bavaria, Germany, Neuschwanstein Castle was built by Ludwig II, the monarch of Bavaria. When Bavaria lost in the war against Prussia in 1866, it was deprived of its powers as a sovereign state, and was absorbed into Prussia-controlled Germany. Ludwig II, who became a nominal king, withdrew himself from public life altogether. He began living a sequestered life, and immersed himself in a self-made fantasy world of medieval culture and Wagner's music, both of which he had admired of. Ultimately, he dedicated his life and pumped his entire fortune into building medieval castles across Bavaria, including Neuschwanstein Castle, which he built on a mountaintop in his childhood hometown. Construction for the Neuschwanstein Castle

보낸 산꼭대기 고향에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비롯한 중세풍의 성을 짓는 데 전 재산과 여생을 쏟았다. 1869년 시작한 건축 공사는 루트비히가 세상을 떠난 1886년에도 완성되지 못할 정도로 웅장하고 섬세했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중세의 외관을 가졌지만 중앙난방, 수도, 수세식 화장실, 전화 등 근대의 기술을 들어놓았다. 중세 게르만 전설에 집착했던 왕의 몽상을 무대감독 출신인 크리스티안 얀크가 충실히 재현했다. 하지만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중세뿐 아니라 로마네스크·비잔틴·고딕 양식의 빼어난 특성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그렇게 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이상적인 궁전, 완벽한 성의 형태를 완성한 이곳엔 지금도 수많은 옛 전설이 흐른다. 어느 비운의 왕이 평생을 꿈꾸었지만, 결국 이르지 못했던 그 환상의 세계가 위풍당당하게 시간을 견디고 있다.

한편 '동양의 베르사유'라 불리는 포탈라(Potala) 궁은 눈부신 위용을 지닌 티베트 불교의 성지다. 티베트 라싸 시가지 중심, 해발고도 3,700미터 홍산 위에 우뚝 서서 신의 뜻을 구하는 중생들을 굽어보고 있는 포탈라 궁은 1,3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began in 1869, but due to the grand scale of the project, it remained far from finish when Ludwig II died in 1886. Perhaps that is why the Castle is home to so many legends people talk about to this day. Meanwhile, the Potala Palace, often referred to as the "Versailles Palace of the East," thanks to its dignified architecture and grand scale, is a sacred place in Tibetan Buddhism. Sitting 3,700m above sea level on top of Ri Marpo (Red Mountain), Potala Palace oversees the sprawling streets of Lhasa, Tibet, which has grown around Ri Marpo over the years. Built more than 1,300 years ago, the name "Potala" comes from the Sanskrit words "Potalaka," in other words, the mythical abode of the Bodhisattva Avalokitesvara. In the 7th century, a "Pakupa Rakan" was built in Lhasa to enshrine Bodhisattva Avalokitesvara. Throughout the ensuing centuries, this original structure was renovated and expanded, until it became the Potala Palace we are familiar with today. The oldest remaining section of Potala Palace was built during the reign of the 5th Dalai Lama, Lobsang Gyatso (1617-1682). Howe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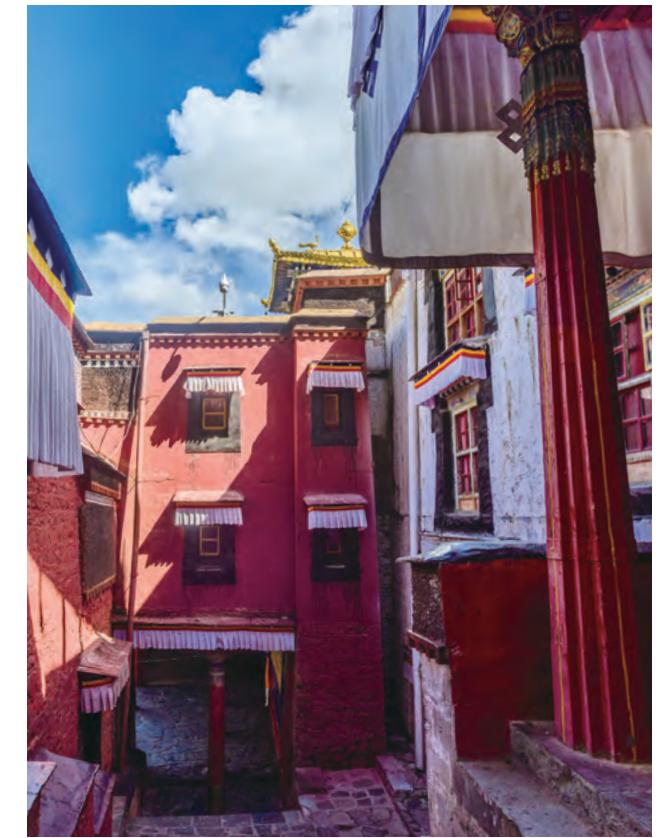


달라이 라마의 정신이 오랜 시간 깃들어 있는 포탈라 궁은 한때
티베트 종교는 물론 문화와 정치의 중심이기도 했다.

포탈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인 ‘포탈라카’, ‘관음보살이 사는 산’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7세기 라싸 지방에 관음보살을 모신 ‘파쿠파 라칸’이 건립된 이후 수백 년 동안 개축과 증축을 이어가며 지금의 포탈라 궁이 되었다. 현재 포탈라 궁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대부분 5대 달라이 라마인 로장 갓소(1617~1682년) 시대에 지어졌고 부분적으로 13대 달라이 라마가 덧붙인 것이다.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포탈라 궁은 과거에는 정부 청사 이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거처이기도 했다. 14대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가면서 주인 없은 공간이 되어버렸지만, 내세의 행복을 위해 방문하는 끊임없는 객들로 가득하다. 1,00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포탈라 궁은 종교적 업무를 관장하던 홍궁(紅宮)과 달라이 라마의 생활공간과 행정을 집행하던 백궁(白宮)이 공개되어 있다. 내세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려는 수행자들에게 포탈라 궁으로 향하는 기파른 계단과 고산증의 어지러움은 기꺼이 행하는 고행일 터이다. S

part of the section features elements added by the 13th Dalai Lama. En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in 1994, Potala Palace was used as an administrative building for the Tibetan government and the residence of the Dalai Lama, who serves a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Tibetan people. As the 14th Dalai Lama went into exile in India, Potala Palace no longer serves as the holy residence of Tibet's spiritual leader today. Instead, it hosts an endless line of visitors traveling to the Palace to pray for happiness in the afterlife. Certain sections of the Potala Palace, which consists of more than 1,000 rooms, is currently open to the public. Most notably, the visitors can access the Potrang Marpo (Red Palace), where the Dalai Lama used to handle religious affairs, and the Potrang Karpo (White Palace), where the Dalai Lama used to live and execute administrative affairs. Meanwhile, the steep stairs leading up to the Potala Palace and the dizziness from altitude sickness are often considered as penance for those seeking happiness in the afterlife.





실란 명작 컬렉션

왕비의 머리 장신구인 떨잠이 설화수를 통해
실란 명작 컬렉션으로 다시금 친밀하게
피어났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18호 옥석장인
벽봉 김영희 장인의 작품으로 영친왕비의
백옥 원형 떨잠을 모티브로 하여 전 세계에서
단 3개만 판매되는 명작 중의 명작이다. 순도
99.9퍼센트로 제작된 은합 위에는 왕실의 대표
문양인 연화와 설화수의 대표 컬러를 상징하는
호박을 물려 배치하고 주변은 윤회와 부활을
상징하는 당초무늬로 장식했다. 가장자리는
비취와 진주로 균형감 있게 마무리하고 길상을
상징하는 봉황이 용수철 위에 시뿐히 내려
앉아 미침내 작은 우주가 완성되었다.
실란 명작 컬렉션은 은은한 광택으로 피부
톤을 밝혀주고 자연스러운 생기와 동시에
얼굴의 윤곽을 잡아주는 실란 컬러팩트를
담았다. 13.5g 2000만원대

영친왕비의 대례복 치장에 쓰인
백옥떨잠, 백옥나비떨잠,
비녀 모양의 가란잠과
비취박쥐뒤꽂이, 호박국화문뒤꽂이
모두 경기도 무형문화재 18호
옥석장인 벽봉 김영희 장인의 작품.
원형 백자 접시는 강소청 작가.

숭고하고 고혹적인 취향

옛 여인의 몸단장은 정성과 염원, 멋이 어우러져 있다. 화려한 보석으로 수놓은 왕비의 머리 장식부터
사대부 여인들이 표현한 고야한 규방 공예, 단아하고 건강하게 표현한 화장 등 은근하게 화사하고, 은은하게 아름답다.
이토록 숭고한 멋과 고혹적인 미감으로 단정한 설화수의 만남은 진정 달갑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실란 콤팩트

옛 여인들의 머리를 장식했던 이름다운
떨잠이 설화수를 만나 컨템포러리한 주얼리
감성으로 재해석되었다. 떨잠의 전통적인
장식 배치에서 벗어나 유색석과 꽃 모티브
세팅을 자유롭게 배열해 모던하면서
유니크한 멋으로 완성된 것. 틸부착이
기능한 전통 매듭 방식의 술은 우아함을
더한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활동한
주얼리 브랜드 'Jye SHIN'의 신예지.
신재은 디자이너 덕분에 동서양을 아우르는
디자인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시크한
검은색 케이스의 실란 콤팩트는 미세하고
가벼운 파우더가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마무리해준다. 9g 18만원



흙의 자연스러운 물성과 손맛이 느껴지도록 빛은 도자기에 은을 입힌 모든 작품은 이혜미 작가의 '실버라인'.

실란 컬러팩트

은 비탕에 유색석과 꽃 모티프 세팅으로 화사함을 더하고 비취색 태슬로 한국적 미감을 표현한
케이스의 실란 컬러팩트는 은은한 광택으로 피부톤을 밝히고 자연스러운 생기는 물론 얼굴 윤곽을
잡아준다. 프리미엄 리미티드로 선보여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설화수의 18번째 실란 컬렉션인
이번 실란 컬러팩트와 실란 콤팩트는 주얼리 브랜드 'Jye SHIN'를 이끌고 있는 신예지, 신재은
디자이너가 옥석장 벽봉 김영희 장인의 실란 명작 컬렉션을 오마주한 특별한 디자인이다. 9g 18만원



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에디션

윤조에센스가 'Reboot M.EI'를 콘셉트로 한층 발달해진 패키지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일러스트 작가 'Saki(권은진)'가 단청에 새겨진 전통 문양과 오방색 매화 문양 등을 자유분방하게 그린 작품이 스티커로 제작되어 윤조에센스 용기를 꾸밀 수 있게 했다. 포장 패키지도 Saki의 감성이 표현된 일러스트를 패턴으로 담아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느껴진다. 판매 수익금 일부를 국내외 문화 후원 활동에 전달해 더욱 뜻깊다. 30ml 5만5000원, 120ml 16만원



색실 누비 비늘집 노리개와 초록색 별 노리개는 이덕운 작가. 둥근 백자 합은 정지원 작가.
정지원 작가: 백자 원형 굽접시는 백소연 작가; 백자 인센스 합은 정지원 작가.
연그레이 컬러 배경은 DE6358로 단에드워드 논현점

에센셜 립 세럼 스틱 New Autumn Color

그림에서 화룡점정은 눈동자이지만 화장에서는 입술이다. 설화수의 에센셜 립세럼 스틱은 화장의 화룡점정을 위해 입술 탄력 케어와 건강한 컬러 표현에 집중했다. 행인유(살구씨 오일)와 엘라스틱 콤플렉스를 담아 탄력을 부여하고 매화 추출물과 고보습 세럼 베이스가 건강하고 윤기 있는 컬러를 구현하는 것. 특히 새롭게 출시된 43호 번트 선셋과 54호 미롱 레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모든 피부 톤에 잘 어울리고 생기와 볼륨 있는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 기을 석양의 따스함을 담은 번트 선셋은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기을의 대표 열매인 밤에서 영감을 받은 미롱 레드는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선사한다. 3g 4만원대



자개함과 자개경대 모두 이영옥 전통자개명장
by 진주쉘 아래가 둥근 굽점사는
오선주 작가. 참이 달린 은빛은 이원공방
심청점 작은 백자 접시는 백소연 작가.
백자 꽃실문함은 신경희 작가. 비취 나비
브로치는 이원공방 심청점



'Reboot M.E!'를 컨셉트로 Saki 작가가 새롭게 디자인한 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에디션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보자기 포장을 소개하는 공간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 마련되었다.

설화수가 불어넣는 새로운 에너지 A Whole New Energy from Sulwhasoo

생동감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에디션을 주제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도 빌랄한 공간이 꾸며졌다. 경쾌한 드로잉 패턴의 보자기 선물 포장 서비스도 더불어 특별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오희원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2층에 일러스트 아티스트인 '사키(Saki, 권은진)'의 아틀리에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설화수는 우리 문화를 다채롭고 개성 넘치게 해석하는 신진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키 작가와 함께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 꾸민 것이다. 기품 있고 고급스러웠던 기존 공간이 자유분방하고 감각적인 사키 작가 특유의 감성을 담아 탈바꿈했다. 디지털 페인팅과 다채로운 색채로 독창적인 콜라주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작가가 백자 용기의 윤조에센스를 도화지 삼아 작업 중이던 작업실을 재현해 공간 자체도 작가의 전시 작품처럼 즐길 수 있음을 물론이고 곳곳에는 작가의 실제 작품들이 놓여 볼거리를 더한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백색의 용기에 사키 작가의 드로잉 스티커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고, 제품 포장재는 한국 전통 건축의 단청 문양을 재해석한 드로잉 패턴과 오방색의 빌랄한 표현을 담았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에디션을 기념하기 위해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키 드로잉 패턴으로 디자인한 보자기로 선물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자기 패턴은 2가지 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인증샷을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고객에 한해 모바일 핑거 스트랩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9월 말까지). 하나의 아트 오브제로 변신한 올해의 윤조에센스 BEAUTY FROM YOUR CULTURE 리미티드 에디션 디자인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의미의 'ReBoot M.E!'가 주제인만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경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누릴 수 있음이 분명하다. S

Sulwhasoo has dedicated a special section on the second floor of its flagship store for visitors to experience what it feels like to be inside the atelier of illustrator and artist Saki (Eunjin Kwon). Saki created an entirely new design for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BEAUTY FROM YOUR CULTURE" Limited Edition, which was launched this year in collaboration with Sulwhasoo. Specifically, it mimics the workshop where Saki created her design for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Limited Edition. It features digital paintings, and a collage of diverse and creative colors. It is the perfect place to get a glimpse into how this up-and-coming artist added her distinct design by using the elegant, white porcelain container as her canvas.

The new First Care Activating Serum "BEAUTY FROM YOUR CULTURE" Limited Edition comes in a white container and includes illustrated stickers drawn by Saki so users can decorate the container in whichever way they want. Meanwhile, the packaging features a Dancheong (traditional Korean pattern used in architecture) pattern recreated by Saki in the form of a drawing pattern, and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that add effervescent energy to the entire product. To celebrate the launching of th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BEAUTY FROM YOUR CULTURE" Limited Edition, Sulwhasoo's Flagship Store is planning to offer a gift-wrapping service for customers purchasing products worth KRW 100,000 or more in total. Customers can choose from two different wrapping cloth patterns (drawing patterns created by Saki) that they can use at the gift-wrapping service.



자연의 이치로부터 얻은 지혜를 재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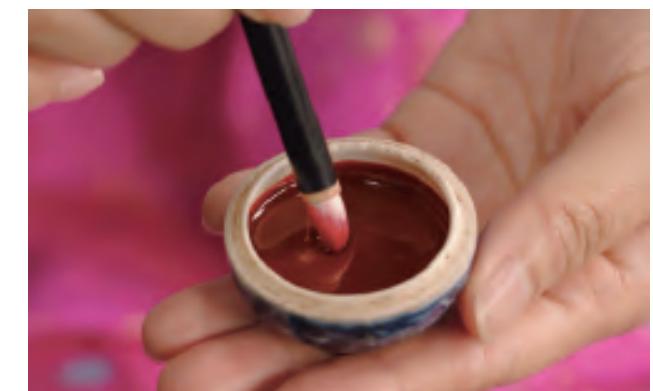
영조의 딸, 화협옹주 묘에서 발굴된 270년 전 화장품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전통의 지혜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설화수가 문화 메세나 활동으로 참여한 EBS 다큐멘터리

〈화협옹주의 마지막 단장〉에서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EBS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들은 영조의 딸 화협옹주는 물론 조선 시대 여인들이 사용했던 270여 년 전 화장품을 재현해 그 기능과 효능이 지금 못지않게 우수했음을 밝혔다.



2016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화협옹주(1731~1752년)의 이장 전 무덤이 발굴되었다. 화협옹주는 영조와 영빈 이씨의 딸이자 사도세자의 친 누나로 혜경궁 홍씨가 쓴 책 〈한중록〉에서는 미색이 뛰어나고 효심이 깊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열한 살에 시집가고 스무 살에 홍역으로 죽어, 영조가 직접 쓴 묘지석에는 자식을 앞서 보내는 슬픈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새겨져 있었다. 화협옹주의 이장 전 무덤에서는 홍미로운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청동 거울과 목제 빗, 여러 가루가 들어 있는 백 자함 등이 나왔는데 270년이나 지났지만 백자 용기 안에는 그 당시 사용했던 화장품 내용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시대 여인들의 화장법과 화장품이 궁금해진 EBS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과 함께 조선 시대 화장품을 재현하는 과정 등을 담아 특집 다큐 〈화협옹주의 마지막 단장〉을 지난 7월 16일 방영했다. 오늘날 스킨 토너에 해당하는 미안수는 말린 수세미를 오랜 시간 끓인 뒤 수분을 짜내 완성하고, 갖은 한방 재료를 끓인 뒤 정제된 밀랍을 넣어 농축해 보습제이자 크림의 역할을 했던 면약을 재현했다. 화협옹주의 연분은 곱게 빻은 쌀가루에 피부색과 비슷한 색감을 내기 위해 좁쌀 가루를 섞었는데, 이는 지금의 파운데이션 역할을 했다. 볼과 입술을 붉게 칠해준 연지는 홍화(잇꽃)를 곱게 갈아 식물성 기름과 섞은 뒤

굳혀 만들었다. 솟과 한천으로는 눈썹을 그리는 미목을 재현해냈다. 아모레퍼시픽 연구진들은 화장품 재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 화장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미안수의 보습력이 상당히 뛰어났고, 연분은 피부 밝기가 현대의 파운데이션을 빌랐을 때와 비슷했으며 피부 결 개선 효과도 놀라웠다. 조선 시대에 사용했던 화장품들도 기본적인 실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세심한 공정을 거쳐서 만든 전통 화장품은 단순한 치장이 아닌 진정한 피부 보호를 추구했던 조선 여인들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지금의 K-뷰티에서도 식물 원료로부터 피부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두드러진다. 설화수 또한 설화수 한방 과학 연구센터를 통해 수만 종의 식물을 조사하고, 아시아의 고대 의서들을 분석해 진귀한 피부 효능 성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 시대 화장품이 K-뷰티와 설화수의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화협옹주의 마지막 단장〉에서는 한 듯 안 한 듯 담백하게 꾸민 여염집 여인들의 화장법과 혼례 화장 등 조선 시대의 화장 문화와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각기 다른 화장법을 통해 3국의 역사와 문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K-뷰티로 이어진 우리 화장품의 뿌리를 찾는 여성은 EB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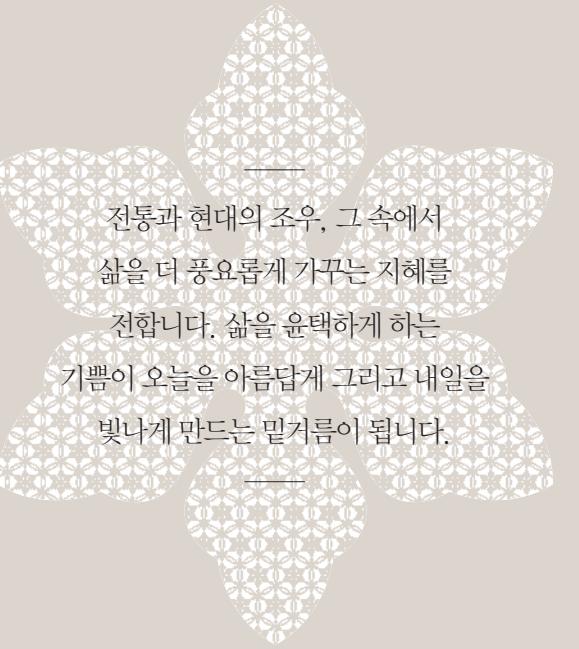
보이지 않는 자극들이 쌓이면 피부는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자음생에센스는 인삼의 생명력을 6,000배* 이상 높춘 진세노믹스™로
피부 탄력을 채우고-세우고-당겨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 진귀한 인삼 사포닌 CK 함량 비교

Sulwhasoo

의
히
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맙거름이 됩니다.



사그라지며 더 깊은 그 향

전 통 향 만 들 기

고요한 시찰에서 맡은 은은한 향내를 기억하며, 하루의 마무리로 피워놓은 선향 하나. 하얀 연기가 공간으로 스며들며,
짙은 향이 코끝에 머물다 저 멀리로 열어진다. 향이 깃들자 방은 이전과는 다른 공간이 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오희원 도움 주신 곳 담비의 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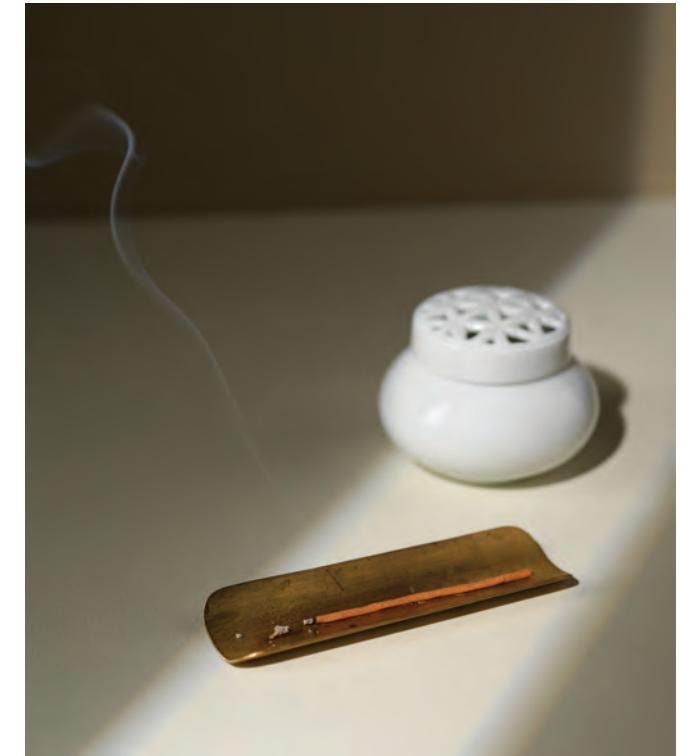
향은 불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 역사가 길다. 고대인은 낙뢰 등으로 우연히 불을 발견하면서, 불을 피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나 풀을 태웠다. 그중 어떤 것들은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향을 내면서 고대인에게 특별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향수’를 뜻하는 ‘perfume’은 라틴어 per fumum에서 비롯되었는데 per는 ‘통하여’, fumum은 ‘연기’라는 뜻이다. 즉 인류가 무언가를 태우면서 ‘향’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 향기가 나는 식물을 태우는 것에서 향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특히 신과 인간의 교감을 돋는 주술적, 종교적 매개체로 쓰였다. 제물을 신에게 바치거나 기도할 때 향을 피우는 훈종의 기록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고대 동양에서 모두 발견된다.

향의 역사

향은 오랜 옛날부터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의 병을 고치는 귀중한 재료였다. 중국, 인도를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일찍부터 향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사원의 제단에 분향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의식에 사용

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불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놀지왕 때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가 신라 땅에 처음으로 향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때는 아직 불교가 신라의 국교가 되기 전으로, 묵호자가 향으로 공주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 이는 향이 단순한 방향제가 아닌, 질병의 치료에도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묵호자는 “향을 태우면 그 정성이 신성한 곳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는 향이 종교적인 도구이기도 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고구려의 쌍영총 고분 벽화에 향로를 머리에 이고 가는 소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향은 활짝 이전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 시대에는 아랍과 일본에 향을 수출할 정도로 본격적인 향문화가 조성되었다.

〈고려도경〉에는 박산로 博山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향을 끓는 물에 담아 옷에 그 김을 씌어 향기가 배어들게 하는 물건이다. 고려 시대에 향은 궁중에서, 혹은 상류층의 한정된 여인들만 사용했지만 조선 시대에 이르러 서민에까지 널리 퍼졌다. 부부의 침실에 향을 사르고 혼례나 차를 즐길 때도 향을 애용했다. 빙허각 이씨가 엮은 가정살림



준비물 연잎 · 황금목 · 지단 · 백단 가루, 막자와 막자사발, 나무 향 저, 유리막대, 향 주걱, 향 수저, 향 만들기 침, 미니 계량스푼, 향 측, 향 집게

만드는 방법

1 막자사발에 연잎 · 황금목 · 지단 · 백단 가루를 1작은술씩 넣어 곱게 빻고 따뜻한 물을 몇 병을 떨어뜨려 배합하여 반죽한다.

2 반죽이 칠흙 정도의 찰기가 생기면 떼어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서 선향을 만든다.

3 향 반죽을 떼어내 뾰 모양을 빚어 뾰향을 만든다.

4 종이를 부채 접기 방식으로 접어 생긴 골에 선향과 뾰향을 올려 하루 정도 건조시킨다.

담비의 차실 식물과 자연을 소재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향과 뾰향 만들기', '손쉽게 차(茶) 우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차, 향, 소리를 통해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평화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램 @dambistearoom](#)

책 〈규합총서〉에는 향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부인들이 일상적으로 향을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은 조선 시대 선비들의 가까운 벗이기도 했다. 그들은 묘시卯時 첫 새벽에 일어나면 향을 피우고 차를 달이며 그 향기에 세상의 온갖 번뇌를 제거하고 심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향의 종류

향은 우선 그 쓰임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몸에 바르는 향은 도향塗香이라 하는데 향수, 향유, 향약 등이 있다. 태워서 그 연기를 써는 것을 소향燒香 또는 훈향燻香이라 하고 이는 환향丸香, 말향末香, 연향練香, 선향線香 등으로 나뉜다.

훈향은 만들고 피우는 방법에 따라서도 여러 종류가 있다. 편향片香은 향나무를 어슷하게 깎아 토막을 낸 것으로 토막향이라 불리기도 한다.

향완이나 전기 향로를 이용해 그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연기가 덜하고 은은한 향이 특징이다. 분향粉香은 가루 향을 이른다. 다양한 문양을

가진 향틀에 가루 향을 다져 넣고 떡처럼 찍어내어 피운다. 선향線香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막대 모양의 향이다. 가루 향을 느릅나무 껍질이나 녹나무 가루와 같은 식물성 접착제와 반죽하여 국수처럼 길게 뽑아 만든다. 반듯하게 세워서, 또는 비스듬히 꽂아 피운다. 선향이 등장하자 향로나 향틀 같은 도구가 없어도 향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탑향塔香은 가루 향을 반죽해 작은 원뿔모양으로 모양내어 만든다. 향불이 잘 끼지지 않아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다.

인간의 후각은 참으로 특별해서 향기로 기분이 바뀌고 때론 아스라한 기억이 소환되기도 한다. 인류가 그렇게 일찍 향을 발견하고 매혹되었던 이유다. 묵직한 숲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향을 기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작지만 충만한 순간을 안겨준다. 직접 만든 향이라면 더욱 뜻깊을 것이다. S

지혜를 담는 보석함

Box Designed to Store Precious Wisdom

조선 시대에 책은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깨우치는 스승이자 입신을 위해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할 벗이었다.
하지만 오늘날과 달리 구하기 어렵고 상하기 쉬우며 값까지 비싼 책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보관한 그 마음이 뜻내 구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한국기구박물관, 서경신 작가

율곡 이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정약용은 “독서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근본이다.”라는 주자의 말을 편지에 담아 아들들에게 보냈다. 조선 시대 선비들은 독서를 수신修身과 세가齊家의 수단으로 삼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책은 아무나 손쉽게 구할 수 없었다. 금속활자를 개발해 눈부신 인쇄 기술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출판과 배포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며 책은 권문세가와 상류 지식층에만 좁게 열려 있었다. 학문과 제도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문치주의를 내세운 조선은 교서관校書館 같은 출판 기관을 설치해 유교 서적, 법전, 역사책을 퍼냈고 중앙 관청과 지방 관청에 보급했기 때문에 책은 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독서를 즐겼고 평생을 바쳤다. 이는 책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러나는데 연암 박지원은 책에 침이 트는 것을 염려해 “책 앞에서는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거나 침을 벨지 마라. 만약 재채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려 책을 피한 다음 재채기를 하라.”고 할 정도로 책을 보물 다루듯 아꼈다.

귀중한 책을 보관하기 위해 책함冊函도 제작했다. 가볍고 방습과 방충에 강한 오동나무를 육면체 모양으로 만드는데 책함의 크기는 책의 크기와 양에 따라 달라지고 장식은 거의 없이 나뭇결만 아름답게 살려 소박하다. 〈논어〉, 〈맹자〉 등 여러 권이 한 질로 된 책을 보관하는 데 유용했고 책을 보관하던 장소에 맞게 여러 개를 쌓아 책장으로 사용할 수도, 분리해 하나씩 들고 다닐 수도 있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모듈형 가구가 조선 시대에도 있었던 것. 한국기구박물관에 소장된 책함을 본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는 모던한 디자인에 연신 감탄했을 정도다. 서경신 가구디자이너는 ‘순박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 책함에 고운 조각보 패턴을 입혀 새로운 미래의 전통을 은근하게 펼쳐냈다. S

Yi I (pen name: Yulgok) once said, “If you have never read a book in your life, you can never be a good person.” Jeong Yak-yong (pen name: Dasan) wrote a letter to his sons, quoting one of Zhu Xi’s sayings, “Reading is the foundation that can bring honor and glory to a family.” These two examples show how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regarded reading as an important means of disciplining themselves individually and leading their families. Back then, however, books were not as easy to obtain as they are today. The act of publishing was strict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ccess to books was granted to a small number of aristocratic families and upper-class intellectuals. For this reason, books were rare. In spite of this shortage in supply, countless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enjoyed and devoted themselves to reading. They also created a bookcase to keep their precious books. They used paulownia wood, which is light and strong against moisture and insect contamination, to create a hexahedron box. The size of each bookcase depended on the size and number of books to store, and the exterior was kept clean and simple with the beautiful wood grain serving as the only decorative element. These bookcases were useful in keeping serials with several volumes. If necessary, the bookcases could b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to fit the library or carried separately to make transporting easier. In some ways, this bookcase developed in the Joseon Dynasty could be regarded as the very first modular furniture used in Korea. American actor Brad Pitt was especially blown away by the modern design of the bookcase he saw at the Korea Furniture Museum. Furniture designer Suh Kyoung Shin created a new form of traditional design by incorporating a finely carved pattern to a traditional bookcase created to showcase the “beauty of pureness.”



책함, 조선 시대



보자기 패턴 책함, 서경신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도자 공예품이 테마별로 구분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연출이 김탄을 자아낸다.
기운데 있는 '백자대호'는 보물 제1441호로 아모레퍼시픽 신본사 건축의 모티브가 되었다.

고아한 옛 풍취 가득한 시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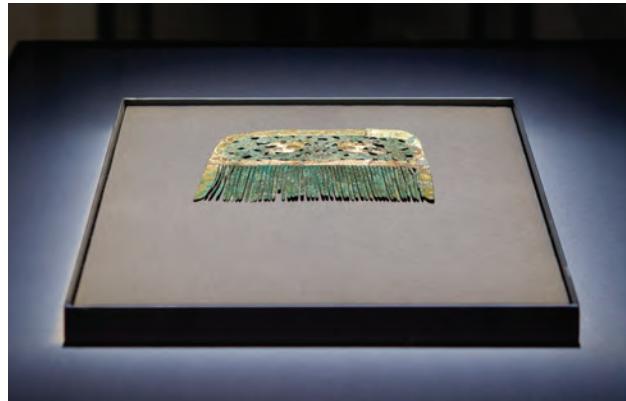
〈APMA, CHAPTER TWO〉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여는 첫 번째 고미술 소장품 특별전이다.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펼치는 이번 전시는 1979년 태평양박물관 개관 이후 현재의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 이르는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기도 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APMA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은 2018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신사옥에 문을 열면서 개관전 〈DECISION FOREST〉를 시작으로 〈조선, 병풍의 나라〉,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 〈APMA, CHAPTER ONE〉, 현대미술 기획전 〈BABARA KRUGER: FOREVER〉 등의 다양한 전시를 펼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APMA, CHAPTER TWO〉 전시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50여년 동안 수집해온 도자기와 회화, 금속 및 목공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시품을 선보인다.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기나긴 역사 위에 펼쳐진 1,500여 소장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은 안겨준다. 도자기, 서화, 금속 및 목공예, 목가구, 섬유와 복식 등 그 종류도 폭넓어, 옛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또한 전시 공간은 가로와 세로의 모듈을 차용해 파티션을 사

선으로 배치하거나 전시 케이스를 확장하여 설치하는 등 작품의 크기나 모양, 기능 등을 고려해 각 전시실의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긴 통로를 통해 고려 시대에서 근대기까지의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고려 시대 불교미술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수월관음도(보물 제1426호)'의 신비로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 고려 불화의 특징인 화려한 색채, 우아한 선으로 묘사한 인물 묘사가 생생하게 살아 있어 깊이 있는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또한 오랜 기간 보존 처리를 거쳐 화려한 원형의 모습을 되찾은 '요지연도8폭병풍'도 인상적이다. 중국 산화의 최고 여신인 서왕모가 3,000년에 한번 익는다는 신비한 복숭아를 대접하려 '요지'라는 연못에서 연회를 여는 장면이 8폭 병풍에 섬세하게 담겨 있다. 각지에서 몰려오는 신선들의 모습이 제각기 개성이 넘쳐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크다.



<APMA, CHAPTER TWO>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기간 2020년 11월 8일까지

예약 문의 apma.amorepacific.com(사전 예약 필수)



이번에 선보이는 고미술 소장품은 선사 시대부터 근대까지 이르는 폭넓은 구성과 도자·회화·금속·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가 돋보인다. 총 6개의 전시실에서 불교미술, 도자공예, 전통 가마, 목공예·목가구 등 1,500여 점의 다채로운 고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2,3 전시실에서는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한다. 중앙의 커다란 탁자 위에 펼쳐진 전시대 위에 수백 점의 도자기가 나열되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장관을 이룬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도자 공예 품이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테마로 구분되어 그 다채로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연출했다. 특히 보물 제1450호인 '분청사기 인화원권문사각변병'과 아모레퍼시픽 신본사 건축의 모티브가 된 보물 제1441호 '백자대호' 등을 가까이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다. 무려 천오백 년에 이르는 시간을 견디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자들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진다.

4전시실에는 근대기에 제작되어 혼례에 쓰였던 가마 '가인교'가 전시되어 있다. 자그마한 가마는 섬세한 조각과 그림 장식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교통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공예품이라 여겨진다. 5전시실은 삼국 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금속공예 및 섬유공

예로 꾸며졌다. 노리개, 은장도, 비녀 등의 세밀한 장식이 돋보이는 작품을 벽면에 전시해 관람객과의 거리를 더욱 좁혔다. 꼼꼼한 바느질 솜씨와 지금 보아도 세련된 배색, 궁리해 만든 오밀조밀한 짜임새에서 우리 민족의 미감이 배어난다.

6전시실에서는 삶의 바탕이 되었던 주거생활에 관련한 목가구와 목공예품들을 만나본다. 세월과 사람의 손길이 깊은 윤기로 남은 반닫이, 장, 농, 탁자 등의 고색창연한 목가구들에서 현대적인 조형 감각을 새로이 발견할 있도록 의도한 배치 방식이 인상적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아카이브 공간에서는 1979년 태평양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던 1970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 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기업 미술관으로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지닌 사명감, 그리고 소명의식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켜왔고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긴 시간 여행을 통과하면서 점점 뚜렷하게 그려진다. S



일상에서 찾아낸 아름다움의 조각들

권 은 진 콜 라 주 아 티 스 트

'Saki(사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은진 작가. 자유분방한 터치의 드로잉과 따스하면서도 감각적인 컬러감으로 구현되는 이미지들은 그녀가 자신만의 눈으로 발견한 아름다움을 기록한 일종의 스크랩북이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어린아이의 스케치북에서 볼 수 있는 분방하고 과감한 선, 그 선들이 만드는 볼드한 색채가 사진이나 타이포그래피와 어우러져 독특한 감성을 낳는다. 사기, 권은진 작가는 드로잉과 이미지, 타이포그래피를 종이와 패브릭, 세라믹 등 다채로운 소재에 구현하는 콜라주 아티스트다. 그녀의 창조적 감각이 설화수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전통'이나 '한국적'이라 생각했던 요소들을 온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발견한 작업이 설화수 윤조 에센스 패키지에 깃들었다.

"설화수는 엄마가 즐겨 쓰시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죠. 전부터 패턴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이번 작업을 계기로 전통 문양을 처음으로 시도해봤어요. 무척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단청의 문양과 오방색을 나름대로 다시 해석했는데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됐어요. 브랜드에 대한 친밀한 느낌이 영향을 준 게 아닐까요?" 내가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주어지는 새로운 방식, 단청과 오방색이 어우러지는 영·한문 캘리그라피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숨길 수 없는, 아니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감수성이 만드는 섬세한 상큼함. 권은진 작가는 그만의 개성을 여러 브랜드와 결래버레이션 작업으로 알려왔다. 패션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기업들과의 협업에 유연한 태도를 갖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계속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창작을 하고 싶었고요. 대학에서 전공은 의상디자인을 했어요. 졸업하고는 여성복 MD로 일했죠. 매 시즌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했어요.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맞춰 제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야 하는 것을 그때 배웠던 거죠. 막상 개인 작업을 시작

하니까 사회생활과 패션계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주변에 패션 쪽 친구들이 많아서 제 작업을 상업적으로 연결시키기 쉬웠어요. 저 역시 상업적인 비주얼을 만드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관심과 흥미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테마나 담론보다는 일상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는 권은진 작가. 그가 일상을 걷다 발견한 사소한 풍경은 우리에게 낯설고 독특한 질감을 가진 이미지로 찾아온다.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 일상에서 평범하게 지나치는 것들이 창작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상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바탕이었죠. 디지털 프린트를 해서 패브릭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보고 겪은 일들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서 바로 작품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아카이브처럼 쌓아놓고 나중에 그 경험들을 다시 구성하는 편이에요. 직접 그린 그림이나 글씨를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사진이나 다른 이미지와 믹스하고, 그 데이터를 다양한 질감을 가진 소재에 옮깁니다. 각각의 단계가 매번 다르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뒤섞이면서 독특한 느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할수록 손으로 직접 한 아날로그 방식의 비중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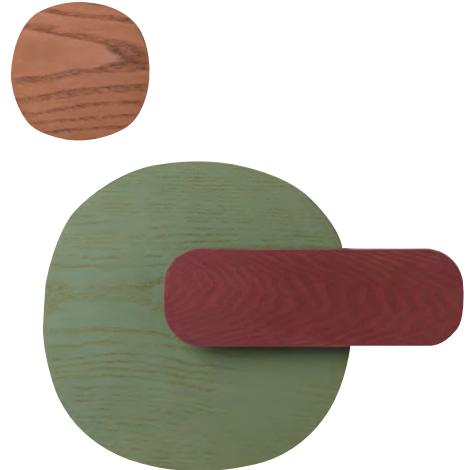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시도해보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천진한 호기심은 많은 사람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기분이 좋아지는 작업을 하고 싶은' 그녀의 바람을 이룰 가장 큰 힘이 아닐까. S



반반한 쟁반

손님에게 물 한 컵을 내더라도 쟁반에 받치면 정성이 더해진다.
음식뿐만 아니라 작은 소품을 모아두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미감까지 담아준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살리는
색옻칠로 표현한 다양한 색감과
모양의 트레이는 오트오트.



비정형의 나무 트레이에 삼베를 깔고
황색, 초록색, 빨간색으로 옻칠한 쟁반은
성광명 작가 by 아원공방 삼청점



나비 문양 주병 패턴이 그려진 천연
섬유를 유리섬유 플라스틱으로
입체해 따뜻한 감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담은 트레이는 본즈

요즘 ‘쟁반’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주방의 필수품으로 그릇과 잔 등을 받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집 안 곳곳에서 다양한 소품을 정리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 기능도 겸한다. ‘트레이’로 부르는 게 익숙해진 쟁반은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서 사용된 꽤 유서 깊은 생활용품이다. 조선 후기 저서 <임원경제지>에서 소개되기도는 유기를 소재로 만들고, 모양이 악기 ‘징’과 비슷하다고 해서 쟁반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고 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에서도 사용되었음을 <고려 도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궁중 연회 시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용도에 따라 차쟁반, 다과용 쟁반, 양주용 쟁반 등 여러 종류가 있고 모양도 원형, 타원형, 사각형, 직사각형 등 다양했다. 소재는 유기, 두석, 은 등 금속제는 물론 나무 쟁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도자기, 유리, 플라스틱, 한지, 대리석 등 보다 다채로운 소재와 디자인으로 쓰임새까지 폭넓어졌다. 공예작가들의 정교한 손맛이 더해져 아트피스가 되기도 하고, 전통 기법과 문양을 재해석해 일상의 감각지수를 높여준다. 쟁반, 트레이의 반반한 변신이 무궁무진하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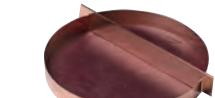
돌을 쌓는 전통 풍습에서 모티브를
얻어 나무와 대리석으로 구성한
DPLATE 트레이는 소미니 by 챕터원.



한지의 질감으로 나뭇잎 맥을 표현하고
옻락칠로 내구성을 높인 가을 낙엽을
닮은 트레이는 김현주 스튜디오.



제주의 모양을 형상화하고 푸른 숲과
바다를 그린 컬러로 표현한 대리석
트레이는 김현주 스튜디오.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바로
실용성을 높인 원형 활동
트레이는 메뉴하.



흙의 조각난 피스를 시그니처로
손잡이 부분에 디자인하고
수금으로 장식한 디저트 트레이는
이틀리에 수 by KDCF갤러리숍.



검은색 강철 소재와 활동
뚜껑이 세련된 원형
트레이는 메뉴하.



쟁반과 식탁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소반이 현대의 생활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모던하게 재해석한 소반 트레이는
컨테이너 5-1 by 서울번드.



천과 종이 나무에 층층이 옻칠해
깊은 색감과 질감을 표현한 원형
트레이는 편소정 작가 by HARTA.



한지에 삼베를 더하고 옻칠로
마무리하고 문살 문양을 새겨
아름다움을 더한 한지 소반 트레이
세트는 정대훈 작가 by 해브빈서울.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자음액티비에이터™가
침체된 피부 능력을 끌어올려 매콤 더 건강한 피부로
기꾸어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60ml | 97,000원대 |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 (LTD)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방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진정 별란상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에센셜 라인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미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벌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과 피부에 얕게 일착되어
촉촉하게 미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신체™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기꾸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비장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증삼된 인삼 애너벨을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이스피아™가
피부를 부양해주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삼수™가
미세 캡슐 진세나이스피아™가
피부를 부양해주는 인삼 캡슐 에센스
80ml | 75,000원대

자음생아이에센스미스트
증삼된 인삼 애너벨을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이스피아™가
피부를 부양해주는 인삼 캡슐 에센스
80ml | 13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증삼된 인삼 결경제가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과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라이트
증삼된 인삼 결경제가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이 있고 매끈한 눈과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아이스크림
증삼된 인삼 결경제가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이 있고 매끈한 눈과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증삼된 인삼 결경제가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이 있고 매끈한 눈과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증삼된 인삼 결경제가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이 있고 매끈한 눈과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아이스크림
증삼된 인삼 결경제가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이 있고 매끈한 눈과
피부를 선사하는 흥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50ml | 12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의 폐물을 제거해
화학 피부로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피부 위로 축축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로션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자정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아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삼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아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스포트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일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소麦 트리트먼트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80ml | 6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삼 성분은 젤
모풀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비장을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0ml | 6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자외선 위험환경 자주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방어하고 편안하게
기꾸주는 저자극 브라이트닝 선크림
30ml | 60,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삼 성분은 젤
모풀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비장을 기꾸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옵션 라인



진초팩
고온 클레이와 한방 허브
辱辱레스™ 모공 클렌징은
물론 예민한 피부까지
달래주는 촉촉한 허벌
클레이 마스크
120ml | 52,000원대

옹용팩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속 시원히
떼어 내주는
필로아이 마스크
150ml | 42,000원대

백삼팩
백삼 성분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시원하면서 스크럽과 마스크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케어 백삼 마스크
120ml | 72,000원대

어윤팩
크림처럼 바르고 자꾸만
하면 다음날 윤기가
되살아나는 편리한
슬리핑 마스크
120ml | 52,000원대

예율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풀려되고
기꾸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설안팩
온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기꾸주는 수면 팩
120ml | 5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병풀 성분이 순상된
전공, 당귀수, 대추
축출물이 매운 입술
마시지 크림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병풀 성분이 순상된
전공, 당귀수, 대추
축출물이 매운 입술
마시지 크림
10g | 45,000원대

여온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이지향 ● 백화지향 ● 운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온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제공하는 여온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여온 라인



여영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이지향 ● 백화지향 ● 운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온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제공하는 여온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리치 ● ●)



명의본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택한 피부로 기꾸주는
8주 케어 인티에이징 앰플
8ml x 4 | 200,000원대

윤조 퍼펙팅 라인



윤조에센스 퍼펙팅
더욱 강력해진 5세대
자음액티브에이터™가
침체된 피부 능력을 끌어올려 매콤 더 건강한 피부로
기꾸어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120ml | 160,000원대 (LTD)

에센셜 퍼펙팅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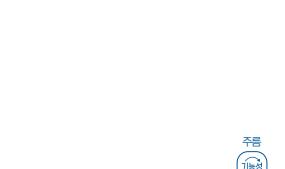
자음수 퍼펙팅
사계절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주고
증진감을 선사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진설명작 라인



자음생크림 퍼펙팅
진세나이스™와 함께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이고
영양을 공급해 사계절 편안하고
운영한 피부로 기꾸주는
탄력 영양크림
60ml | 250,000원대

진설명작 라인



수분영양크림
메마른 피부에 강력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을 함께
전달해 꽉 찬 보습으로
속갈김까지 케어해주는
세계질용 수분영양크림
50ml | 70,000원대

설린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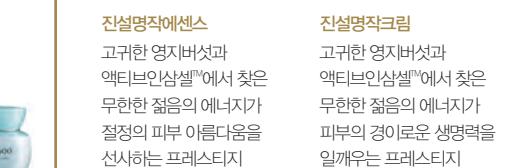
설수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비장을
기꾸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 컨디셔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아이 라인



설린아이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비장을
기꾸주는 생기 베이스 스키니 컨디셔너
50ml | 140,000원대

수울 라인



수울크림
매화의 향산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 요인과 피부 노화의 장애를
케어해 환한 눈과 기꾸어주는 생기
탄력 아이 젤 크림
50ml | 9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개운하고
촉촉한 풀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진설에센스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적송에
건강하고 생기를 더해 피부에
길이 있는 촉촉함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리필 334,000원대)

진설우액



진설아이에센스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적송에
건강하고 생기를 더해 피부에
길이 있는 촉촉함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25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진설크림
고농축 적송과 신양삼의
강한 적송력으로
예민한 눈과 피부의 힘을
길이 있는 피부로 기꾸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60ml | 470,000원대 (리필 413,000원대)

진설마스크

바디 & 헤어



트레블 키트 백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과 섬세한 텍스처가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 감각적인 비스듬을 선사하는 럭셔리 트레블 키트
(헤어아쿠아, 헤어컨디셔너, 바디워시 바디로션)

50ml x 4 | 55,000원대



동백윤모오일
자연 유래 동백 오일이
40ml | 30,000원대 (라이프 ● ● ● 리치 ● ●)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향 컬렉션
● 청향 ● 백은향 ● 금윤향 ● 홍과향 ● 흑진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윤기 있는
귀한 한방 오이오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리스트 & 라이트 타입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이프 ● ● ● 리치 ● ●)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윤기 있는
귀한 한방 오이오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는
리스트 & 라이트 타입 핸드워시

300ml | 36,000원대



비더로션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몸을
감싸 피부에 보습과 단백, 윤기를
선사하는 비더로션

250ml | 60,000원대

퍼펙팅 라인



● 11호 포슬린(핑크)
● 15호 아보리(핑크)
● 17호 아보리(베이지)
● 21호 내추럴(핑크)
● 23호 내추럴(베이지)
● 25호 샌드(핑크)
● 27호 샌드(베이지)
● 31호 하니(핑크)
● 33호 하니(베이지)
● 37호 앰버(베이지)



● 11C호 쿨 포슬린
● 13호 쿨 아이보리
● 13호 아이보리
● 17호 쿨 바닐라
● 17호 바닐라
● 21호 월 베이지
● 21호 월 베이지
● 23호 월 샌드
● 25N호 앰버



● 2IN호 베이지
● 23N호 샌드
● 25N호 앰버



● 2IN호 베이지
● 23N호 베이지
● 25N호 앰버



● 01호 투명
● 2IN호 베이지
● 23N호 샌드

MEN



홀리스틱 케어



리프레싱크렌징폼
자연 유래 피우며 성분과 조밀한 껌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폼

150ml | 30,000원대

본운에센스
주름, 단백, 칙칙함을 개미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운유액
남성 피부 경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개미해주는 고보습 인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운크림
피부 노화를 원회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서 UV 프로텍터(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예생분앰플
천삼화 홍삼이 혈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미시는 홍삼 앰플

20g x 30 | 170,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7자 빛깔의 비석 파우더가 피부에 온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촘촘하게 일자로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팩트
영운 피우다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리필 80,000원대)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SPF 25 / PA++)
쉬어 하이드라 콜러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8,000원대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립
● 1호 애프로 세럼
● 2호 블라썸 세럼
● 15호 아보리(핑크)
● 17호 아보리(베이지)
● 23호 차분한 색
● 24호 블라워 핑크
● 25호 블라워 레드
● 38호 서틀 핑크
● 43호 베트 선셋
● 48호 블라썸 코랄
● 54호 마롱 레드
● 59호 어터 레드

실란 명작 컬렉션



메이크업밸런서



CC

● 1호 라이트 핑크
● 2호 라이트 퍼플
● 3호 라이트 그린



CC유액(SPF 34 / PA++)
피부 결과 피부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 밸런서

35ml | 65,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SPF 34 / PA++)
피부 결과 피부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 밸런서

35ml | 60,000원대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
5세대 윤조에센스(비아이티™)가
매일 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필수
로션

60ml | 97,000원대



자음수 랜턴컬렉션
깊은 흙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필수
로션

120ml | 160,000원대



자음유액 랜턴컬렉션
5세대 윤조에센스(비아이티™)가
매일 더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필수
로션

125ml | 57,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랜턴컬렉션
깊은 흙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필수
로션

50ml | 200,000원대



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력을
담은 피부를
아시아 지혜의 빛을
담은 피부와 미용에
에너지로 전시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

60ml | 250,000원대



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윤조지향 향초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7종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매화지향 향초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이웍 향초

200g | 100,000원대

실란 명작

99% 은합 위에 진한 보석 장식을 더한
화장과 안에 은한 광택으로 피부들을 밝혀주고
자연스러운 생기와 동시에 얼굴의 윤곽을 감아주는
프리미엄 라이트드 블러셔

13g | 2천만원

실란 콤팩트

미세하고 가벼운 파우더 입자가
얼굴에 부드럽게 와 달고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미무리해주는
프리미엄 라이트드 블러셔

9g | 180,000원

실란 컬러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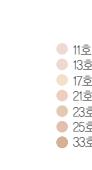
은은한 광택으로 피부들을
밝혀주고 자연스러운 생기와
동시에 얼굴의 윤곽을 감아주는
프리미엄 라이트드 블러셔

9g | 180,000원

자장 브라이트닝 쿠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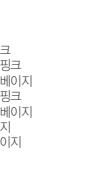
SPF 50+ / PA+++
짙고 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터에이징 쿠션
40일 속성
프리미엄 바누

14g x 2 | 68,000원대
(리필 40,000원대)



퍼펙팅 쿠션 인тен스
(SPF 50+ / PA+++)
짙고 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터에이징 쿠션
40일 속성
프리미엄 바누

14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자음생에센스(5명)

활성부티사포닌 진세노믹스™가 피부의 탄력을 필요한 곳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피부 속부터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마이크로 타겟팅 탄력을 선사합니다. 총총이 쌓인 여타 피부 구조를 동시에 복구해 외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턴튼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자음생앰플(5명)

귀하게 얻은 진삼베리 성분과 활성부티사포닌 진세노믹스™가 더블로 작용해 응급 상황에서 피부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줍니다. 단 한 번 사용으로도 효능을 느낄 수 있고, 3주간 한 병 모두 사용하면 주름, 모공 등 노화에 의한 흔적이 유의미하게 개선됩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20년 12월 10일까지
 중정 선물 자음생에센스, 자음생앰플
 당첨자 발표 97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20년 95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NEW 윤조에센스(5명)

권혜린 인천시 서구 검암로
 이영숙 대전시 유성구 배울2로
 치명주 강원 동해시 월평로
 최연순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최유라 대전시 서구 도솔로

상백크림 NO.1 크리미 글로우(5명)

구정숙 대구시 중구 동덕로
 김미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청이대로
 송영희 서울시 성북구 북안산로
 안희숙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이정자 부산시 동구 시청로

READER'S REVIEW



매일 더 좋아지는 피부를 위한 첫 단계 안티에이징

더욱더 새로워진 윤조에센스를 매거진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어 반기웠습니다. 벌써 5세대 윤조에센스라니 대단합니다. 새로운 윤조에센스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진화도 기대됩니다.
 – 치명주 강원 동해시 월평로



서촌에서 살아보는 여행

서촌 한옥스테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시설 구성에 다양한 컨셉트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설화지혜에 소개된 상백크림도 더 좋아진 거 같아서 기대됩니다.
 – 송영희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2020년 95호 당첨자 선물은 10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자음액티베이터™로 타고난 피부 능력을 깨우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최적의 황금비율로 완성된 자음액티베이터™는 피부 자생력은 물론 피부 표면의 생태계까지 강화합니다. 이제, 더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설화수 피부 과학의 결정체 자음액티베이터™

더 강력해진 자음액티베이터™는 피부 노화를 총괄하는 스킨 마스터 팩터(Skin Master Factor)를 통해 피부 표면의 생태계를 강화해 피부 건강 지수¹를 146% 개선합니다. 이것이 설화수만의 유스마스터테크놀로지입니다.

¹피부 건강 지수(Skin Youth Index) : 설화수의 피부 개선 효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피부노화 6가지 지표 (수분량/윤기/투명/주름/피부빛/피부장벽) 기반의 토클 인티에이징 지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표준점수/개선 전 피부100 기준)

Sulwhasoo

Special Gift

업서를 보내주신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봉합엽서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SEPHORA

세포라 파르나스몰점 02-3453-1083
세포라 롯데영플리자점 02-779-9332
세포라 롯데월드점 02-3213-4694

백화점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캘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인천광역시, 경기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242-2139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롯데백화점 충동점 032-320-7135
현대백화점 종동점 032-623-2136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현대백화점 카이스트점 031-822-3140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901
캘러리아백화점 평교점 031-5174-7141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롯데백화점 삼인점 053-258-3106w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뉴코아이몰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캘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편치다

설화지혜(8p)

피부 섬기기(12p)

新 장인을 만나다(18p)

공간미감(24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2p)

어우러지다(42p)

설화풍경(48p)

설화보감(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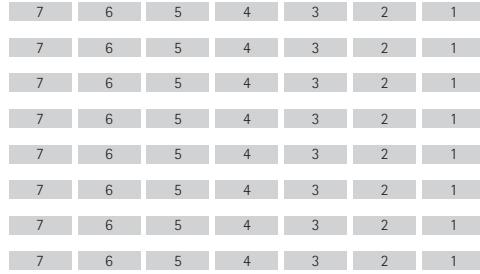
아름다운 기행(58p)

설화수를 말하다(64p)

설화공간(72p)

설화수 스페셜(74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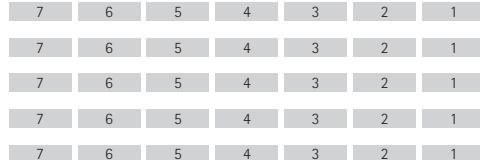
한국의 멋(84p)

읽다(86p)

설화애장(90p)

집 안 단장(92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자음생에센스□

자음생애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6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12월 10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로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에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에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기아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9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윤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탐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032-743-6567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 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어의도 면세점	02-21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현대 동대문 면세점	02-3668-8124

